

2020 EBS

운문 모음

EBS분석서 리오피트 자료모음



2020 수능완성 국어 독서/문학 제재

EBS분석서 2020

*공간 확보를 위해 몇몇 항목은 이동하였습니다.

| 독서 | 1 | 2 | 3 |
|-----|---------------------|------------------------------|------------------------------------|
| 유형 | 합리회의 역리 극복-베버와 하버마스 | 합리적 기대 이론 | 항바이러스제의 개발 |
| 실전1 | 인문, 심리적 면역 체계 | 사회, 코즈의 경리와 범경제학 | 과학,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
| 실전2 | 사회, 소비와 문화의 불평등 | 기술,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 | 예술, 아방가르드와 예술 작품의 가치 |
| 실전3 | 인문, 분석 철학과 리셀의 철학 | 사회,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변화 | 융합, 쇠라의 점묘법에 담긴 과학적 원리 |
| 실전4 | 과학, 태풍의 발달 원인과 구조 | 융합, 담합의 불안정성과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 인문, 사회와 봉당 정치 |
| 실전5 | 기술, 녹아웃 | 인문, 언어학자들은 은유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 예술, 파노프스키의 도상학과 뒤러 |
| | | | 사회, 근로장려세제(EITC)와 기초생활보장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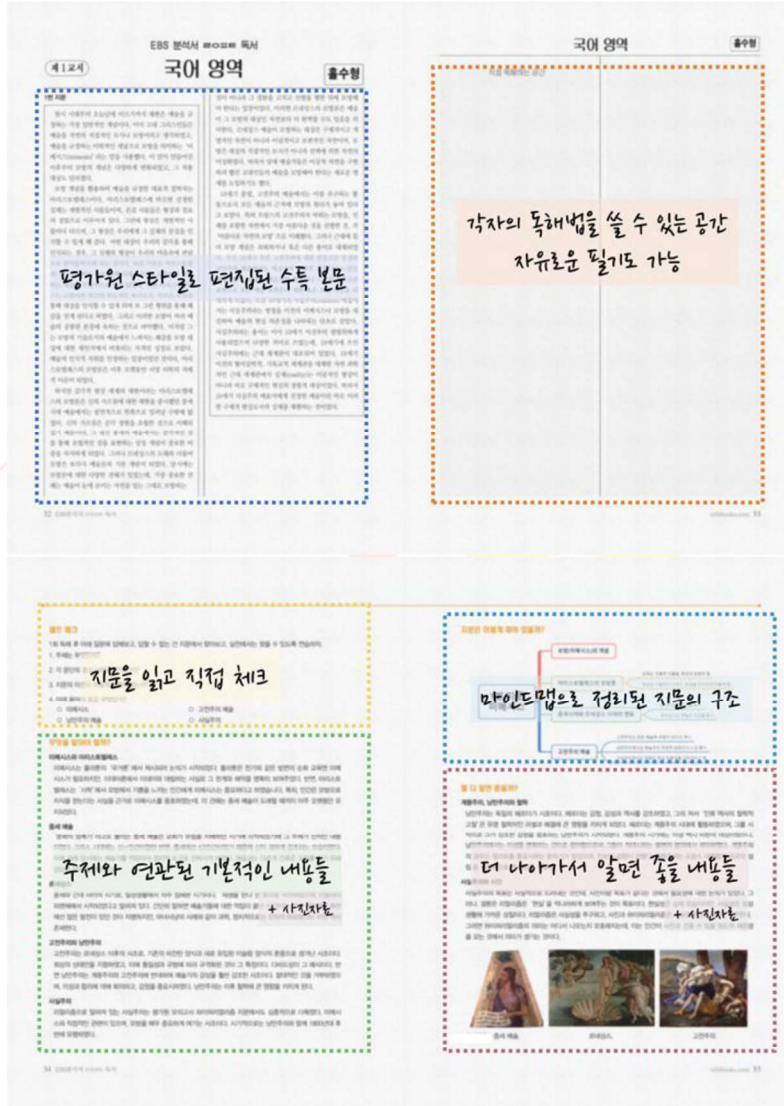
| 문학 | 현대문 | | 현대문 | 고전문 | 고전문 | 고전문 | 극&수필 |
|-----|------------------|--------------------|----------------|--------------|-------|-------|------------------|
| | 현대문 | 고전문 | | | | | |
| 유형 | 경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이기철, 청산행 | 손창섭, 잉여인간 | 신계영, 월선현심육경가 | 적성의전 | 적성의전 | 송혜진, 박홍식, 언어공주 |
| 실전1 | 운동주, 바람이 불어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최인훈, 회색인 | 정철, 관동별곡 | 정을선전 | 정을선전 | (고전문) 이침, 원수 |
| 실전2 |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 기형도, 가을 무덤-제망매가 | 김동인, 태형 | 정훈, 우월가 | 오유관전 | 오유관전 | 조환유 외, 편지 |
| 실전3 | 이동순, 개밤풀 | (고전문) 궁병이 매암이 되야 | 서경인, 후송 | 신홍, 냇가에 헤오라바 | 숙영남자전 | 숙영남자전 | 이강백, 동지선달 꽃 본 듯이 |
| 실전4 | 박두진, 설악부 | 이건청, 하류 | 김원일, 노을 | 이이, 고산구곡가 | 이대봉전 | 이대봉전 | 이양하, 나무의 위의 |
| 실전5 | 조지훈, 흙을 만지며 | | 이창준, 자서전을 쓰십시오 | 사제가 | 김원전 | 김원전 | 윤대성, 출세기 |



EBS 분석서 ㄹㅇㅍㅌ 자료시리즈입니다

ㄹㅇㅍㅌ는 EBS 독서 분석서입니다.

현재 교보문고, yes24 등 대부분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네이버책정보, 오르비 북스)



수능특강 현대운문

EBS 분석서

리 오투

포트

독서



유리창 1

정지용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琉璃)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어니,

고흔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사(산의) 새처럼 날아갔구나!

EBS 분석서
2011
독서



독을 차고

김영랑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훑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 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얼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핏귀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자화상

운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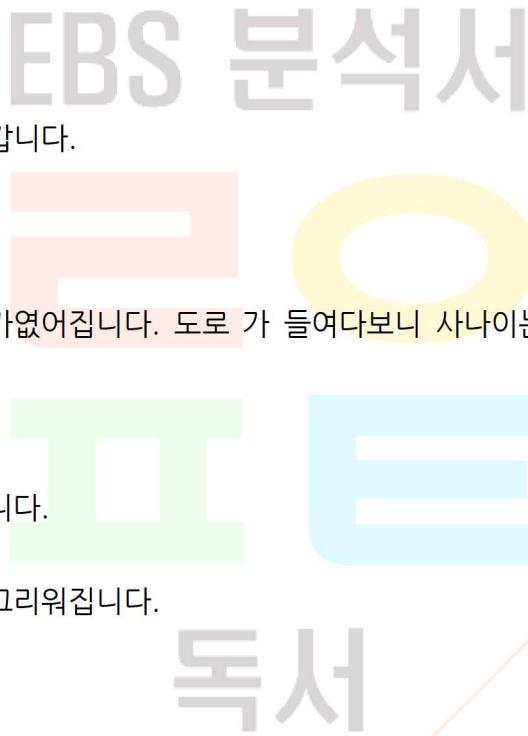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의 침실로

이상화

‘마돈나’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려는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돈나’오려무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眞珠)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덴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마돈나’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못 개가 짖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 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침실로 가자, 침실로!

낮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욱---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촉(燭)불을 보라.

양털같은 바람결에도 질식(窒息)이 되어, 얇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마돈나’오너라. 가자 앞산 그리매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 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불는지---가슴이 뛰누나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마돈나’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네 손에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마돈나’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 이도 없으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마돈나’가엎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음은---.

내 몸에 피란 피---가슴의 샘이 말라 버린 듯 마음과 몸이 타려는도다.

‘마돈나’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가자. 꼬을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내 침실이 부활(復活)의 동굴(洞窟)임을 네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사람이 안고 궁그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 물결도 잦아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앞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걱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EBS 분석서
크
오
포
트
독서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감감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EBS 분석서

리 오편

포 테

독서



삼수갑산-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

김소월

삼수갑산(三水甲山)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노

오고나니 기험(寄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첩첩(山疊疊)이라 아하하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삼수갑산 멀드라 아하 촉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노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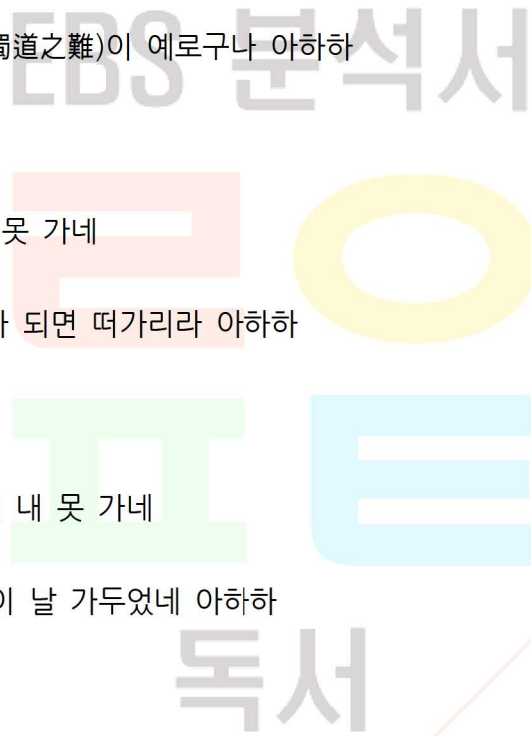
불귀(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

오다 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귀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목계장터

신경림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뒷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EBS 분석서
2011
독서



산도화 1

박목월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EBS 분석서

리오포트

리포트

독서



초록 바람의 전언

고재종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며
강물 위에 짹짹 구슬알을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의 구슬땀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아무려면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오월도 청청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신는 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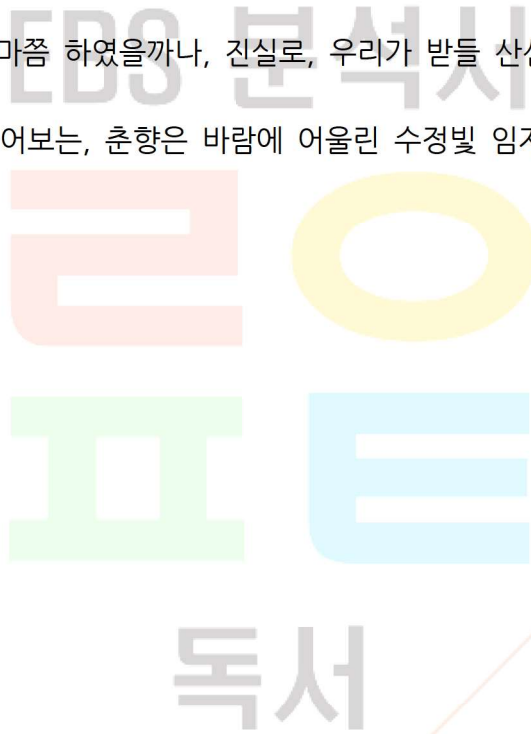


수정가

박재삼

집을 치면,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의, 갈앉은 뜨락의,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그 옆에 순순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에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꽃피는 시절

이성복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난 몸뚱이 갈가리 찢어지고

EBS 분석서
2011
꽃피는 시절
독서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켜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앞앞이, 뺄아낼 테지만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땡길 일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막만한 손으로 뺏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당신

EBS 분석서
크
오
표
E
독서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EBS 분석서
크
오
포
트
독서



저린사랑

정끝별

당신 오른팔을 베고 자는 내내
내 몸을 지탱하려는 내 왼팔이 저리다
딸 머리를 오른팔에 누이고 자는 내내
딸 몸을 받아내는 내 오른팔이 저리다
제 몸을 지탱하려는 딸의 왼팔도 저렸을까

몸 위에 몸을 내리고
내린 몸을 몸으로 지탱하며
팔베개 돌이 되어
소스라치며 떨어지는 당신 잠에
내 비명이 닿지 않도록
내 숨소리를 죽이며

저린 두 몸이
서로에게 밑간이 되도록
잠들기까지 그렇게
절여지는 두 몸
저런, 저린 팔이 없는

EBS 분석서
ㄹㅇㅍㅌ
독서



거울

이상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यो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यो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뒹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떡섭섭하오



꽃밭의 독백-사소단장

서정주

노래가 낫기는 그 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새벽(開關)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낱 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 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海濤)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EBS 분석서
2011
포인트
독서



이 사진 앞에서

이승하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인류의 죄에서 눈 돌린 죄악을 향한

인류의 금세기 죄악을 향한

인류의 호의호식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소말리아

한 어린이의

오체투지의 예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자정 넘어 취한 채 귀가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계운

내가 우연히 펼친 <TIME>지의 사진

이 까만 생명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EBS 분석서

리오

포테

독서



자화상 부근

문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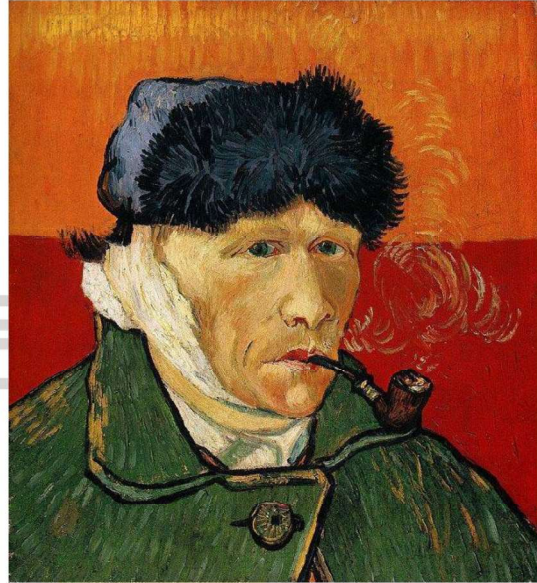
입에 문 파이프에서

진종일 가마귀들이 날아오르는 오후

조요로운 나무 위로

노오란 죽음이 내려앉은 고희의 방을

두드린다



창문처럼 걸려있는 자화상 속에

삼나무드은 아름다운 고뇌를 울부짖다가

그대로 하나의 정물이 되는데



날 흔들지 마!

날 흔들지 마!

바늘 끝에 서있는 슬픈 눈으로

고흐는 내게 한 잔의 독주를 권하며

먼 이별을 예비시킨다



눈

김수영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EBS 분석서

리
오

포
트

독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둔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EBS 분석서
2011
독서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웁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동켜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EBS 분석서

리오포트

독서



목호항

송수권

비가 오는 날 고모를 따라 고모부의 무덤에 갔다
 검은 배들이 꿈틀거리고 목호항이 내려다보였다
 고모는 오징어를 따라 군산 여수 목포 앞바다를 다 놔두고
 전라도에서 목호항까지 고모부를 따라왔다
 나는 실로 이십 몇 년 만에 고모부를 찾았다
 고모부는 질편한 동해에서 돌아와 무덤 속에 잠들었다
 폭풍이 치고 온 산과 바다가 울고
 독도 바깥 대화퇴 잠든 어장을 우산으로 가리며
 늙은 고모의 등이 비에 젖지 않게
 나는 우산대에 박쥐처럼 붙어 눈물을 떨구었다
 사는 일은 무엇일까?
 공동묘지의 벌겁게 까진 잔등이 비에 얼룩지고
 비명처럼 황토흙의 빛깔들이 새어나왔다
 외짝 신발 하나를 묻고 봉분을 짓고
 “오매 오매 날 무얼라고 맹글었는고 짚방석이나 맹글 일이제....”
 흐렁흐렁 울음 속에서도 황토흙처럼 불거져 나온
 저 전라도의 간투사(間投詞)들
 오늘 나처럼 고모부 내외가 낯설게 이삿짐을 풀던 날도
 목호항은 이렇게 흔들리고만 있었을까



낯은 집

이용악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낯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동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래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찾길이 놓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EBS 분석서

2016

독서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붙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보냈다는
그날 밤
저릐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 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야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핏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EBS 분석서
크
오
포
트
독서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 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EBS 분석서

리오포트

독서



향아

신동엽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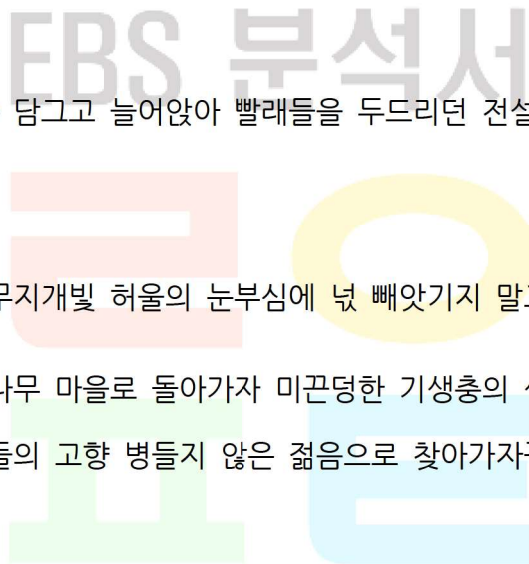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傳說)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낼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공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未開地)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여우난굴[꺾족]

백석

절날 나는 엄마 아배 따라 우리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있는 큰집으로 가면

얼굴에 별 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루에 베 한필을 찐다는 벌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신리 고무, 고무 딸 이녀, 작은 이녀

열 여섯에 사십이 넘은 할아버지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우 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 고무, 고무의 딸 승녀, 아들 승동이

육십리라고 해서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 옷이
정하든, 말 끝에 씹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흥녀, 아들 흥동이, 작은 흥동이

배나무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에 반디젓 담그러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삼촌 엄마,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

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 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뽕운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오양간섭 발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타고 장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복적하니 논다.

밤이 기어 가는 집안엔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싹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구손이하고 ,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흥계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룻목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육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셋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 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ㄹㅇㅍㅌㅕ 독서



푸른 밤

나희덕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EBS 분석서

리오포트

독서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예움길이었다.

EBS 분석서

리오포트

독서

독서



겨울 바다

김남조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未知)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海風)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일어 버리고

허무(虛無)의

불

물 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

고덕이며 고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EBS 분석서

2011

포인트

독서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水深)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EBS 분석서

리오포트

독서

독서



사무원

김기택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의자 고행을 했다고 한다.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장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의자에 단단히 붙박여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으로 공양을 마쳤다고 한다.

그가 화장실 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의자가 직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는 하루종일 손익관리대장경(損益管理臺帳經)과 자금수지심경(資金收支心經) 속의 숫자를 읊으며

철저히 고행업무 속에만 은둔하였다고 한다.

종소리 북소리 목탁소리로 전화벨이 울리면

수화기에다 자금현황 매출원가 영업이익 재고자산 부실채권 등등등을

청아하고 구성지게 염불했다고 한다.

끝없는 수행정진으로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오랜 음지의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 배를 올렸다고 한다.

수행에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

전화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누르기도 했으며

귀가하다가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밀어 넣었다고도 한다.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30 년 간의 장좌불립(長座不立)"이라고 불렀다 한다.

그리 부르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묵언으로 일관했으며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외부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나마 지금껏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의 통장으로는 매달 적은 대로 시주가 들어왔고

시주는 채워지기 무섭게 속가의 살림에 흔적없이 스며들었으나

혹시 남는지 역시 모자라는지 한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의자 고행에만 더욱 용맹정진했다고 한다.

그의 책상 아래에는 여전히 다리가 여섯이었고

둘은 그의 다리 넷은 의자다리였지만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추일서정

김광균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 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잠기어 간다.

EBS 분석서
2018
포
TE
독서



별을 굽다

김혜순

사당역 4 호선에서 2 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EBS 분석서
리오포트
독서



전천후 산성비

이형기

우리 시대의 비는 계절과 무관하다.

시도 때도 없이

푸른 것은 모조리 갹아먹어 버리는

전천후 산성비.

그렇다 전천후로

비는 죽은 구근을 흔들어 깨워서

자꾸만 생산을 재촉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이 넘치고 넘치는

그래서 미처 다 소비하기도 전에

쓰레기통만 가득 채우는 시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린다고는

누군가 참 잘도 말했다.

한때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독했던

EBS 분석서

ㄹㅇ

ㅍㅌㅍ

독서



그러한 절망이 도처에서 천방지축으로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는 시대.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어 깨우면서
그 위에 내리는
시도 때도 없는 산성비.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다.

일회용 비닐우산이 되어버린
절망을 쓰고 있다.

비극이 되기에는
너무나 흔해빠진 우리 시대의 비.

대량생산의 장미를 쓰레기통에 가득 채우는
전천후 산성비 오늘도 내린다.

EBS 분석서

리 오포트

리 오포트

독서



가을 떡갈나무 숲

이준관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꽤기잡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의 혼례(婚禮),
그 눈부신 날개짓소리 들릴 듯 한데,
텃새만 남아
산(山)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 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 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山)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山)짐승의

절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있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거야, 있을 떨군다.

EBS 분석서

2011

독서



새 1

박남수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EBS 분석서

르ㅇ

ㅍㅌ

독서



3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순수를 거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EBS 분석서

리 오편

포 테

독서



새가 있던 자리

천양희

앞인 줄 알았는데 새네

저런 곳에도 새가 앉을 수 있다니

새는 가벼우니까

바람 속에 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프리다 갈로의 <부서진 기둥>을 보고 있을 때

내 뼈가 자꾸 부서진다

새들은 몇 번이나 바닥을 쳐야

하늘에다 발을 옮기는 것일까

비상으느 언제나 바닥에서 태어난다

나도 그런 적 있다

작은 것 탐하다 큰 것을 잃었다

한 수 앞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못 보았다

얼마를 더 많이 걸어야 인간이 되나*

EBS 분석서
2011
독서



아직 덜 되어서

언젠가는 더 되려는 것

미완이나 미로 같은 것

노력하는 동안 우리모두 방황한다

나는 다시 배운다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

없으므로 오늘을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 밥 딜런의 노래에서 인용)

EBS 분석서

리오포트

독서

독서



오렌지

신동집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잘한 속살을 갈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대는 순간

EBS 분석서

ㄹㅇㅍㅌ

포ㅌ

독서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푹푹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EBS 분석서

리오

포테

독서



사과를 먹으며

함민복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마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영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EBS 분석서

2011

포스트

독서



흙으로 빗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EBS 분석서

리 오후

포 테

독서



수능특강 고전운문

EBS 분석서

리 오투

포트

독서



송인

정지상

雨歇長堤草色多 (우혈장제초색다) 비 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르네

送君南浦動悲歌 (송군남포동비가)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수하시진)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別淚年年添綠波 (별루년년첨록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EBS 분석서
ㄹㅇㅍㅌㅍ

독서



무어별

임제

十五日桂女 / 십오월계녀 /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

羞人無語別 / 수인무어별 / 남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헤어졌네

歸來掩重門 / 귀래엄중문 / 돌아와 겹문을 꼭꼭 닫아걸고는

泣向梨花月 / 읍향이화월 / 배꽃 같은 달을 향하여 흐느끼네.

EBS 분석서

2016

포인트

독서



안민가(安民歌)

충담사(忠談師)

君隱父也

군(君)은 어비여

臣隱愛賜尸母史也

신(臣)은 득스살 어시여.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민(民)은 얼흔 아히고 흐살디

民是愛尸知古如

민(民)이 득스 알고다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구물스다히 살손 물생(物生)

此盼喰惡支治良羅

이흘 머기 다스라

此地盼捨遺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

이 싸흘 브리곡 어디 갈데 흘디

國惡支持以支知古如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

아으, 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 흐늘든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악 태평(太平)흐니잇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오백년 도읍지를

길재

오백 년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돌아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데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EBS 분석서

리 오프

포트

독서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이항(李滉)

이런들 엇더하며 더런들 엇더하료?

草野愚生(초야 우생)이 이러타 엇더하료?

하물며 泉石膏肓(천석고황)을 고태 무슴하료?

EBS 분석서

<제 1 곡>

煙霞(연하)에 집을 삼고 風月(풍월)로 벗을 사마

太平聖代(태평성대)에 病(병)으로 늘거나뇌

이 둥에 브라는 일은 허므리나 업고쟈.

코요테

<제 2 곡>

淳風(순풍)이 죽다하니 眞實(진실)로 거즈마리

人性(인성)이 어지다 하니 眞實(진실)로 올흔 말이

天下(천하)에 許多 英才(허다 영재)를 소겨 말숨흘가.

독서

<제 3 곡>

幽蘭(유란)이 在谷(재곡)하니 自然(자연)이 듯디 도희

白雪(백설)이 在山(재산)하니 自然(자연)이 보디 도해



이 등에 彼美一人(피미일인)을 더욱 낫디 못하애.

<제 4 곡>

山前(산전)에 有臺(유대)하코 臺下(대하)애 有水(유수) | 로다.

뻘 만흔 굴머기는 오명가명 하거든

엇디다 皎皎白鷗(교교 백구)는 멀리 못습 하논고

<제 5 곡>

春風(춘풍)에 花滿山(화만산)하코 秋夜(추야)애 月滿臺(월만대)라.

四時佳興(사시가흥)이 사롭과 혼가지라.

하닐며 魚躍鳶飛(어약연비) 雲影天光(운영천광)이아 어니 그지 이슬고.

<제 6 곡>

天雲臺(천운대) 도라드러 완락재 瀟灑(소쇄)하디

萬卷生涯(만권생애)로 樂事(낙사) | 無窮(무궁)하애라.

이 등에 往來 風流(왕래풍류)를 닐어 못습 흘고.

<제 7 곡>

雷霆(뇌정)이 破山(파산)하여도 聾者(농자)는 못 들느니

白日(백일)일 中天(중천)하야도 瞶者(고자)는 못 보느니

우리는 耳目(이목) 聰明(충명) 男子(남자)로 聾瞶(농고) 곤디 마로리.



<제 8 곡>

古人(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고인) 못 봐.
古人(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 알피 잇니,
녀던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제 9 곡>

當時(당시)에 녀던 길흘 몇 히를 브려 두고,
어디 가 든니다가 이제사 도라운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 디 모습 마로리.

<제 10 곡>

靑山(청산)는 엇데하야 萬古(만고)애 프르르며,
流水(유수)는 엇데하야 晝夜(주야)애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만고 상청)호리라.

<제 11 곡>

愚夫(우부)도 알며 헉거니 괴 아니 쉬운가?
聖人(성인)도 못다 헉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늣는 주를 몰래라.

<제 12 곡>



구지가

龜 何 龜 何(구하구하) 거북아, 거북아

首 其 現 也(수기현야) 머리를 내어라.

若 不 現 也(약불현야) 내어 놓지 않으면,

燔 灼 而 喫 也(번작이깍야) 구워서 먹으리.

EBS 분석서

ㄹㅇ

ㅍㅌ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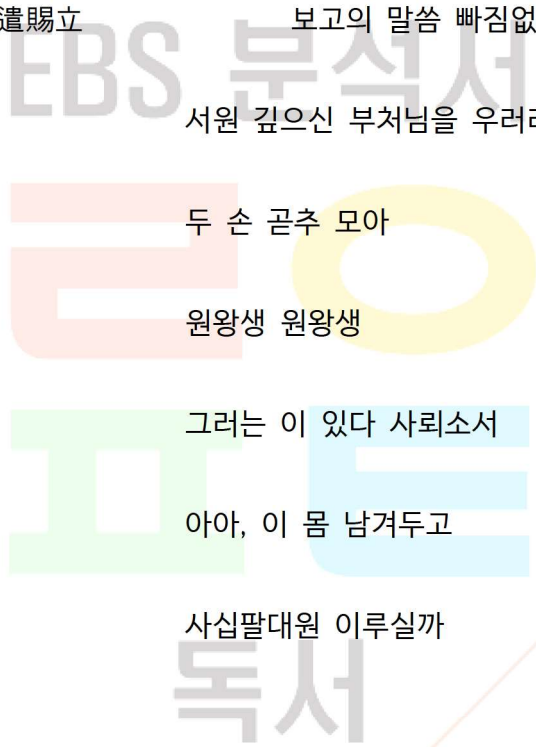
독서



원왕생가

광덕

| | |
|-----------------------|----------------------|
| 月下伊底亦 | 달이 어째서 |
| 西方念丁去賜里遣 |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
| 無量壽佛前乃 | 무량수불 전에 |
| 惱叱古音 [鄉言云報言也] 多可支白遣賜立 |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
|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 서원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
| 兩手集刀花乎白良 | 두 손 곧추 모아 |
| 願往生願往生 | 원왕생 원왕생 |
| 慕人有如白遣賜立 | 그러는 이 있다 사뢰소서 |
| 阿邪 此身遺也置遣 | 아아, 이 몸 남겨두고 |
| 四十八大願成遣賜去 | 사십팔대원 이루실까 |



청산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후렴: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넬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링공 더링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짐대에 올라셔 히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가다니 비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이 몸이 주거 가서 ~

성삼문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서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하리라.

EBS 분석서

ㄹㅇ

ㅍㅌㅍ

독서



꿈에 왔던님이 ~

박효관

꿈에 왔던님이 깨여 보니 간 디 업네

탐탐(耽耽)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虛事)라만정 자로 뵈게 하여라

EBS 분석서

리오포트

리오포트

독서



창 내고져 창을 내고져 ~

창(窓)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배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득닥 박아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불가 하노라.

EBS 분석서

리 오프

포트

독서



어부사시사, 윤선도

-춘사(春詞)-

원문

현대어 풀이

[春詞 1]

압니예 안기것고 뒷뫼예 히비췌다.
 비 떠라 비 떠라
 밤물은 거의지고 낮물이 미러온다.
 至甸憲(지국총) 至甸憲(지국총) 於思臥(어사와)
 江村(강촌)에 온갓곳이 먼빋치 더욱 조해라

앞 포구에 안개가 걷히고 뒷산에 해가 비친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썰물은 거의 빠지고 밀물이 밀려 온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강 마을의 온갓 꽃들이 먼 빛으로 바라보니 더욱 좋구나.

[春詞 2]

날이덥도다 물우희 고기췌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곶먹이 돌식셋섯 오락가락 흐논고야.
 至甸憲(지국총) 至甸憲(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낙디논 쥐여있다 濁酒瓶(탁주병) 시럿느냐

날이 따뜻해졌도다. 물 위로 고기 튀는다.
 닻을 들어올려라, 닻을 들어올려라.
 갈매기 돌씩 셋씩 오락가락하는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낙시대는 손에 쥐어져 있다. 막걸리 병은 실었느냐?

[春詞 3]

東風(동풍)이 검든 부니 몹결이 고이인다.
 돛 드러라, 돛 드러라
 東湖(동호)를 도라보며 西湖(서호)로 가자스라.
 至甸憲(지국총) 至甸憲(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압뫼히 지나가고 뒷뫼히 나아온다

동풍이 문득 부니. 물결이 곱게 일어난다.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동호를 돌아보며 서호로 가자꾸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타난다



[春詞 4]

우는 거시 벉구기가 프른거시 버들솅가.
 이어라 이어라
 漁村(어촌) 두어집이 내속의 날낙들낙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말가흔 김픈소의 온갓고기 뛰노는다

우는 것이 빠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드나무 숲인가.
 노 저어라 노 저어라.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하는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맑고 깊은 못에 온갓 고기 뛰는다.

[春詞 5]

고은벗치 썬되 물결이 기름길다.
 이어라, 이어라
 구물을 주어두랴 낙시를 노홀일가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濯纓歌(탁영가)의 흥(흥)이나니 고기도 이즐
 노다

고운 햇빛이 내리 썬니, 물결이 기름처럼 반짝인다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구물을 넣어 볼 것인가? 낙시를 드리워 볼 것인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탁영가의 흥취가 일어나니 고기 잡을 생각도 잊겠도다.

[春詞 6]

夕陽(석양)의 빗겨시니 그만헝여 도라가자.
 돛 디여라, 돛 디여라
 岸柳汀花(안류정화)는 고빅고빅 시롭고야.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엇더타 三公(삼공)을 불를소냐 만스를 싱각헝랴

석양 빛이 비치니 그만하고 돌아가자꾸나. 돛을 내려라
 돛을 내려라.
 언덕 위의 버들과 물가의 꽃들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삼공(벼슬)을 부러워할소냐? 세상 만사 생각해 무엇하리



[春詞 7]

芳草(방초)를 바라보며 蘭芷(난지)도 쓰더보자.
 비 세여라, 비 세여라
 一葉扁舟(일엽편주)에 시른거시 무스것고.
 至叅憲(지국총) 至叅憲(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갈제논 내썩이오 올제논 들 썩이로다

운 풀을 밟아 보며. 난초와 지초도 뜯어 보자.
 배 멈춰라. 배를 멈춰라.
 한 조각 거룻배에다 실은 것이 무엇인고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갈 때는 나뿐이었는데, 올 때는 달이 함께 한다.

[春詞 8]

醉(취)하야 누엇다가 여흠아리 누리거다.
 비 미여라, 비 미여라
 落紅(낙홍)이 흘너오니 桃源(도원)이 갓갑도다.
 至叅憲(지국총) 至叅憲(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人世紅塵(인세홍진)이 언미나 가렸느니

술에 취해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내려간다.
 배를 매어라. 배를 매어라.
 떨어진 꽃잎이 떠내려 오니 무릉도원이 가까이 있는 듯,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인간 세상의 더러움이 얼마나 내 눈을 가렸던고.

[春詞 9]

낙시줄 거더노코 篷窓(봉창)의 들을보자.
 달 디여라, 달 디여라
 흥믄 밤들거냐 子規(자규)소리 묻게는다.
 至叅憲(지국총) 至叅憲(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남은 흥(흥)이 無窮(무궁)하니 갈길흘 이것
 쫓다

낙시줄을 건어놓고 봉창을 통해 달을 보자.
 닳을 내려라, 닳을 내려라.
 벌써 밤이 깊었는가, 소쩍새 소리 맑게 들리는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남은 흥취가 끝이 없으니(돌아) 갈 길도 잊었구나.



[春詞10]

來日(내일)이 또업스랴 봄밤이 옛덧시리.
 비 브터라, 비 브터라
 낙디로 막디삼고 柴扉(시비)를 츠자보자.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漁父生涯(어부생애)는 이렇구러 지니노라

내일이란 날이 또 없으랴. 봄밤이 바로 썰 것이다.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낚싯대로 지팡이를 삼고 우리 집 사립문을 찾아가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어부의 한평생은 이력저력 지내노라.

EBS 분석서

2011 포에

독서



-하사(夏詞)-

[夏詞 1]

구즌비 머러가고 시니물이 몹아온다.
 비 떠라 비 떠라
 낙디를 두러메니 김픈興(흥)을 禁(금)못홀다.
 至(지) 兎(우) 思(사) 臥(와) (지국충) 至(지) 兎(우) 思(사) 臥(와) (어사와)
 두어라 煙(연) 江(강) 疊(첩) 嶂(장) (연강첩장)은 杼(서)라셔 그려낸고

긱은비가 점차 멏어 가고 시넛물도 맑아진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낙싯대를 들러메니 솟구치는 흥취를 금할 수 없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안개 낀 강 겹겹의 봉우리 누가 그려낸 그림인가?

[夏詞 2]

蓮(년)넙히 밥싸두고 饌(찬)飯(반)으란 장만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청) 蕩(당) 笠(립) (청약립)은 씨잇노라 絲(시) 蓑(소) 衣(의) (녹사의)를 가져오냐.
 至(지) 兎(우) 思(사) 臥(와) (지국충) 至(지) 兎(우) 思(사) 臥(와) (어사와)
 엇더타 無(무) 心(심) (무심)은 白(백) 鷗(구) (백구)는 간 곳마다 좃닌다

연잎에 밥을 싸 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닳을 들어올려라, 닳을 들어올려라.
 샷갓은 쓰고 있노라. 도롱이는 가져왔느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무심한 갈매기는 가는 곳마다 좃아 다닌다.

[夏詞 3]

마람넙히 브람나니 篷(봉)窓(창)이 셔늘코야.
 돛 드러라, 돛 드러라
 녀름브람 덩홀소냐 가논디로 비시겨라.
 至(지) 兎(우) 思(사) 臥(와) (지국충) 至(지) 兎(우) 思(사) 臥(와) (어사와)
 아히야 北(북) 浦(포) 南(남) 江(강) (북포남강)이 어디아니 도홀너니

마른 풀잎 위로 바람 부니 봉창이 셔늘하구나.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여름 바람이 일정하게만 불겠느냐? 그냥 배 가는 대로
 두어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북쪽 포구나 남쪽 강, 어디든 좋지 않겠는가?



[夏詞 4]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씻다 엇더하리.
 이어라 이어라
 吳江(오강)의 가자하니 千年怒濤(천년노도) 슬플노다.
 至芻蕘(지국총) 至芻蕘(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楚江(초강)의 가자하니 魚腹忠魂(어복충혼)
 낮글세라

물이 흐리다면 발을 씻는 것이 어떠하리.
 노 저어라 노 저어라.
 오강으로 가려 하니 천 년의 성난 파도가 슬프도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초강으로 가려 하니 고기 뱃속의 충혼(굴원의 넋)을 낚을
 가 두렵다.

[夏詞 5]

萬柳綠陰(만류녹음) 어린그디 一片苔磯(일편태기) 奇特
 (기특)하다.
 이어라, 이어라
 ㄸ리에 다듯거든 漁人爭渡(어인쟁도)허물마라.
 至芻蕘(지국총) 至芻蕘(지국총) 於思臥(어사와)
 가다가 鶴髮老翁(학발노옹) 만나거든 雷澤效居效則(뇌택
 효거효즉)하자

푸른 버들 우거진 곳에 이끼 낀 물가가 마음에 드는구나.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다리에 닿거든 낚시꾼들의 먼저 건너려는 몸싸움을 허물
 마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백발머리 노인을 만나거든 뇌택이 집을 양보한 옛일을 본
 받아꾸나.

[夏詞 6]

긴날이 저므는줄 興(흥)의미쳐 모로도다.
 돛 디여라, 돛 디여라
 비대를 두드리고 水調歌(수조가)를 불너보자.
 至芻蕘(지국총) 至芻蕘(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엇더타 欸乃聲中(관내성중)에 萬古心(만고심)을 誰 誰알고

긴 여름날이 저무는 줄을 흥에 겨워 미처 몰랐도다.
 돛을 내려라 돛을 내려라.
 뱃전을 두드리며 뱃노래를 불러 보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뱃노래 소리에 배어 있는 옛사람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
 는가?



[夏詞 7]

夕陽(석양)이 도타마는 黃昏(황혼)이 갓갓거다.

비 세여라, 비 세여라

바회우희에 구분길 솔아리 빗겨있다.

至 兪 淸(지국충) 至 兪 淸(지국충) 於 思 臥(어사와)

어디서 碧 樹 鶯 聲(벽수앵성)이 곳곳이 들이는다

석양이 좋다만 어느덧 황혼이 가깝구나.

배 멈춰라. 배를 멈춰라.

바위 위 굽은 길이 소나무 아래로 비스듬히 나 있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푸른 숲 속 피꼬리 우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구나.

[夏詞 8]

모래우희 금을널고 쉼잇티 누어쉬자.

비 미여라, 비 미여라

모기를 퓌다흠야 蒼 蠅(창승)이 엇더흔이

至 兪 淸(지국충) 至 兪 淸(지국충) 於 思 臥(어사와)

眞 實(진실)로 담안흔 勤 心(근심)은 桑 大 夫(상대부)

헝혀들을 썰라

모래 위에 그물을 널고 돛(배의 지붕) 밑에 누워 쉬자.

배를 매어라. 배를 매어라.

모기 밍다지만, 쉬파리와 견주어 어떠한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다만 한 가지 근심은 상대부(소인배)가 이런 말을 듣지나
않을까 두렵도다.

[夏詞 9]

밤쌔이 風 浪(풍랑)닐쑤을 밀이어이 斟酌(짐작)홀리.

달 디여라, 달 디여라

夜 渡 橫 舟(야도횡주)를 누라셔 닐렀는고.

至 兪 淸(지국충) 至 兪 淸(지국충) 於 思 臥(어사와)

어즘어 澗 邊 幽 草(간변유초)는 眞 實(진실)로 보기쥬

왜라

밤사이 풍랑이 일 줄을 어찌 미리 짐작할 수 있겠는가?

달을 내려라, 달을 내려라.

들녘 나루터에 배가 가로놓여 있노라 누가 말하였는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계곡 가에 우거진 풀도 참으로 애처롭구나.



[夏詞 10]

蝸室(와실)을 바라보니 白雲(백운)이 둘러있다.

비 브터라, 비 브터라

부들부채 7로쥐고 石逕(석경)으로 올라가자.

至菊窓(지국창) 至菊窓(지국창) 於思臥(어사와)

아마도 漁翁(어옹)이 閑暇(한가)터냐 이거시 구실이

라

좁은 내 집을 바라보니 흰 구름이 둘러 있구나.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부들부채를 가로쥐고 돌길로 올라가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늙은 어부의 생활이 그리 한가하더냐. 이것이 어부의 직
분이랴.

EBS 분석서

20

16

독서



-추사(秋詞)-

[秋詞 1]

物外(물외)에 조흔일이 漁父生涯(어부생애) 아니런
가.

비 떠라 비 떠라

漁翁(어옹)을 웃지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至叻憲(지국총) 至叻憲(지국총) 於思馱(어사와)

두어라 四時佳興(사시가흥)이 훈가지나 秋江(추강)

이 웃듬이라

속세를 벗어난 곳에서 깨끗한 일로 소일함이 어부의 생활
이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늪은 고기잡이라고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더

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사계절의 흥취가 마찬가지로 비슷하나 그 중에서도 가을
강이 제일이라.

[秋詞 2]

水國(수국)이 7 올히드니 고기마다 슬져있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萬頃澄波(만경징파)의 슬꺠지 容與(용여) 흐자.

至叻憲(지국총) 至叻憲(지국총) 於思馱(어사와)

人間(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쪼타

바다에 가을이 찾아오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아득히 넓고 맑은 파도에 실컷 한가롭게 노닐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구나.

[秋詞 3]

白雲(백운)이 이러나니 나무쑤치 흔들린다.

돛 드러라, 돛 드러라

밀물에 東湖(동호)가고 혈물의 西湖(서호)가자.

至叻憲(지국총) 至叻憲(지국총) 於思馱(어사와)

아희야 넌 그물거더 서리고 닻출 들고 돛출 놓히 다

라스라

흰 구름 피어나니 바람에 나무 끝이 흔들린다.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밀물 때는 동호로 갔다가, 썰물 때는 서호로 가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넌 그물 걸어 서려 놓고, 닻을 들고 돛을 높이 달아라.



[秋詞 4]

기러기 씻는빛과 못보던뉘 비는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흐려니와 取(취)한거시 이 흥(흥)이라.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夕陽(석양)이 부이니 千山(천산)이 錦繡(금
 수) | 로다

러기 날아가는 밖에 못 보던 산이 보이는구나.
 노 저어라 노 저어라.
 낙시질도 하겠지마는 내가 취하려는 것이 자연을 즐기는
 흥취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석양이 눈부시니 모든 산이 수 놓은 비단 같도다.

[秋詞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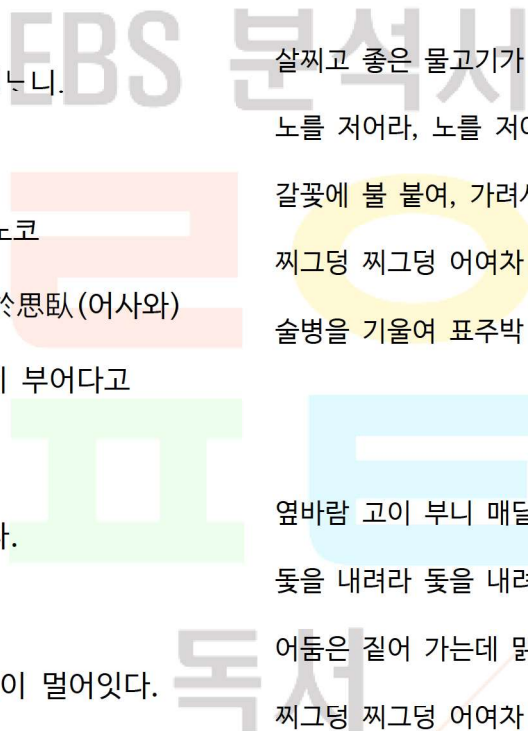
銀罍玉尺(은순옥척)이 멎치나 걸년느니.
 이어라, 이어라
 蘆花(노화)에 불부러 곱히여 구어노코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질병을 겨우러로혀 박국이에 부어다고

살찌고 좋은 물고기가 몇 마리나 걸렸느냐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갈꽃에 불 붙여, 가려서 구워 놓고,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술병을 기울여 표주박 술잔에 부어다오.

[秋詞 6]

넙브람 고이분이 들은듯게 돌아왔다.
 돛 디여라, 돛 디여라
 暝色(명색)은 나아오되 淸興(청흥)이 멀어있다.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어인지 綠樹淸江(녹수청강)이 슬미지도 아네라

옆바람 고이 부니 매달아 놓은 돛으로 돌아왔다.
 돛을 내려라 돛을 내려라.
 어둠은 짙어 가는데 맑은 흥취는 아직 남았도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단풍든 나무, 맑은 강은 언제 봐도 미워지지 않는구나.



[秋詞 7]

흰이슬 빗겨논디 붉은돌 도다온다.
 비 세여라, 비 세여라
 鳳凰樓(봉황루) 渺然(묘연)하니 淸光(청광)을 놀을줄고.
 至叅憲(지국총) 至叅憲(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어디서 玉免(옥토)의 썬는藥(약)을 豪客(호객)을 먹
 이고자

흰 이슬이 내릴 즈음에 밝은 달이 떠오른다.
 배 멈춰라. 배를 멈춰라.
 봉황루 아득하니 맑은 달빛을 누구에게 줄까?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옥토끼가 썬은 약을 속세를 등진 호객에게 먹이고 싶구
 나.

[秋詞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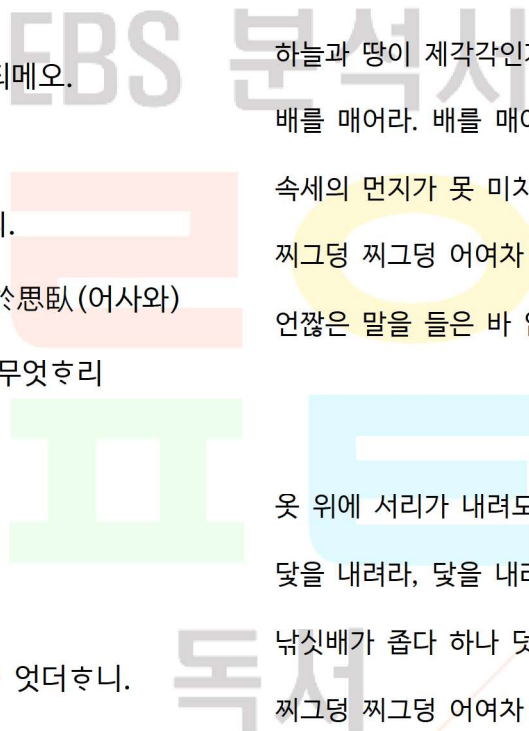
乾坤(건곤)이 제곰인가 이거시 어디메오.
 비 미여라, 비 미여라
 서풍진 못미흐니 부체하야 무엇하리.
 至叅憲(지국총) 至叅憲(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드른말이 업서시니 귀씨서 무엇하리

하늘과 땅이 제각각인가? 여기가 어디인가?
 배를 매어라. 배를 매어라.
 속세의 먼지가 못 미치니 부채질하여 무엇하리.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언짢은 말을 들은 바 없으니 귀를 씻어 무엇하리.

[秋詞 9]

옷우희 서리오되 치운줄 몰을노다.
 달 디여라, 달 디여라
 釣舡(조강) 좃다하나 浮世(부세)와 엇더하니.
 至叅憲(지국총) 至叅憲(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來日(내일)도 이러하고 모뢰도 이러하리라

옷 위에 서리가 내려도 추운 줄을 모르겠도다.
 닳을 내려라, 닳을 내려라.
 낚싯배가 좃다 하나 덧없는 세상과 견주어 어떠하더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내일도 이렇게 하고 모래도 이렇게 지내려 한다.



[秋詞10]

松間石室(송간석실)의 가 曉月(잔월)을 보자하니.

비 브터라, 비 브터라

空山落葉(공산낙엽)의 길흙 엇지 아라볼고.

至兪憇(지국충) 至兪憇(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白雲(백운)이 조츰오니 女蘿衣(여라의) 무겁

고야

소나무 숲속 돌집으로 돌아가 새벽달을 보려 하니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적막한 산에 낙엽이 쌓여 길을 어찌 알아볼고.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흰구름이 드러나니 여라의(풀을 엮어 지은 옷)가 무거워

지는구나.

EBS 분석서

20

16

독서



-동사(冬詞)-

[冬詞 1]

굴음이 거든後(후)에 햇빛치 독겁거다.
 비 떠라 비 떠라
 天地閉塞(천지폐색) ㅎ되 바다흔 依舊(의구) ㅎ다.
 兎兎(지국총) 至兎兎(지국총) 於思臥(어사와)
 ㄱ업고 ㄱ업슨 물썰이 김편는듯 ㅎ여라

구름이 걷히고 나니 햇별이 두텁게 내리쬐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천지가 온통 생기를 잃었으나 바다만은 여전하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끝없는 물결이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다.

[冬詞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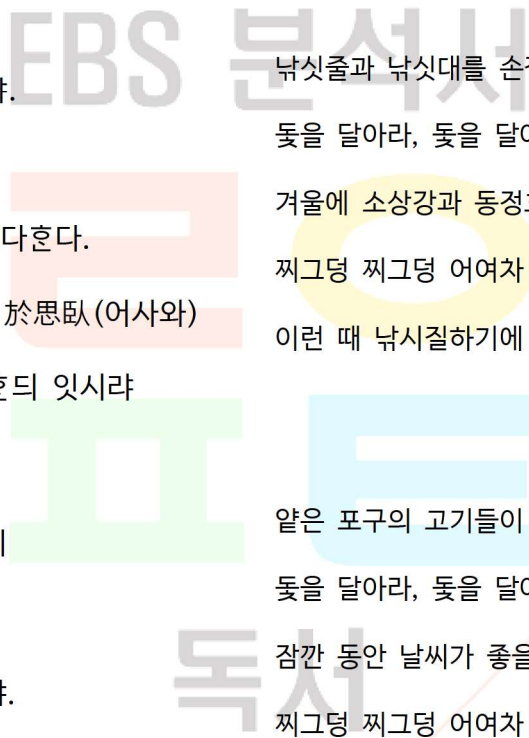
주대도 다슬이고 빗밥을 박았는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瀟湘洞庭(소상동정)은 그물이 언다흔다.
 至兎兎(지국총) 至兎兎(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암아도 잇새 漁釣(어조)야 이만흔디 잇시라

낙숫줄과 낙숫대를 손질하고 뱃밥도 박았느냐?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겨울에 소상강과 동정호는 그물이 언다고 하더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이런 때 낙시질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도다.

[冬詞 3]

옛튼개 곡이들이 먼소히 다갓는이
 돛 드러라, 돛 드러라
 적은듯 날쪼흔제 밧탕의 나가보쟈.
 至兎兎(지국총) 至兎兎(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미끼가 미기굿다오면 굴근곡이 문다네

얕은 포구의 고기들이 먼 곳으로 다 갔으니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잠깐 동안 날씨가 좋을 때에 일터에 나가 보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미끼가 좋으면 굶은 고기가 문다고 하더라.



[冬詞 4]

간밤의 눈긴後(후)에 景物(경물)이 달났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萬頃琉璃(만경유리) 뒤희는 千疊玉山(천첩옥산)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이거시 仙界(선계) 佛界(불계) 니가 人間이 아니로다

[冬詞 5]

금을 낙씨두고 빗새를 두드린다.

이어라, 이어라

압내를 건너뵈야 몇番(번)인아 헤여본고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어디셔 無端(무단)흔 된브람이 흥여 안이 불어올

싸

[冬詞 6]

날아가는 가마괴들이 몇친아 지나건이

돋 디여라, 돋 디여라

압쌀이 어두온이 暮雪(모설)이 즈자졌.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뉘라셔 그 죠흔 鵝鴨池(아압지)에 草本苦(초본고)

을 싹건이

간밤에 눈 갠 뒤에 경치와 물색이 달라졌구나.

노 저어라 노 저어라.

앞에는 맑고 넓은 바다. 뒤에는 겹겹이 둘러싸인 백옥 같은 산. 신선의 선계인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부처의 세계인가? 인간 세상은 아니로다.

그물과 낚시도 잊고 뱃전을 두드리며 흥겨워 한다.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앞 개울을 건너 이 곳에 오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던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느닷없는 강풍이 행여 불어올까 걱정이다

자러 가는 까마귀 몇 마리 지나간다.

돋을 내려라 돋을 내려라.

앞길이 어두워지니 저녁 눈이 점차 잦아들었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아압지를 누가 쳐서 부끄러움을 씻어볼까?



[冬詞 7]

丹崖翠壁(단안취벽)이 畫屏(화병)갓치 둘러논디
 雨 세여라, 雨 세여라
 巨口細鱗(거구세린)을 낫그나 못낫그나.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야희야 孤舟蓑笠(고주사립)에 興(흥)겨워 안갓노

라

[冬詞 8]

木々の 외로운 木 혼자어이 식식하고
 雨 미여라, 雨 미여라
 머흔구름 恨(한)티마라 世上(세상)을 可리온다.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波浪聲(파랑성)을 厭(염)티마라 塵喧(진환)을 막는또

다

[冬詞 9]

滄洲(창주)에 울이道(도)를 네뵈터 날렸는이
 月 디여라, 月 디여라
 七里羊裘(칠리양구)는 可 잇더 훈이런고.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모름이 三千六百(삼천육백) 낙씨는 손꿈을췌 어잇

던고

울긋불긋 절벽이 그림 병풍처럼 둘러 있는데,
 배 멈춰라. 배를 멈춰라.
 꺾저기를 낚나 못 낚나 어디 한번 해 보자꾸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외딴 배에 도롱이, 삿갓 쓰고 흥에 겨워 앉았노라.

물가의 외로운 소나무 어이 홀로 씩씩하게 서 있는가.
 배를 매어라. 배를 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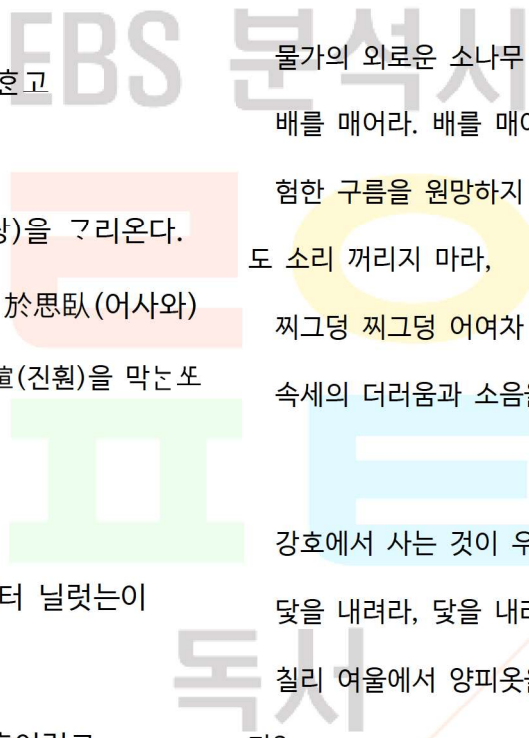
험한 구름을 원망하지 마라, 인간 세상을 가려 준다. 파
 도 소리 꺼리지 마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속세의 더러움과 소음을 막아 준다.

강호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도임을 옛부터 일렀더라.
 닳을 내려라, 닳을 내려라.

칠리 여울에서 양피옷을 쓰고 낚시질하던 이는 어떠한
 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삼천육백 날 낚시질하며 손꿈아 때를 기다리던 심정은 어
 뻤을까?



[冬詞10]

어화 점들어간다 偃息(언식)이 맛당토다.

비 브터라, 비 브터라

근은눈 쓸인길히 興(흥)침여 돌아와서

至兪憲(지국충) 至兪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西峰(서봉)에 들넘어 가도록 竹窓(죽창)에 빗겨잇

노라

아아! 날이 저물어 가니 편히 쉬이 마땅하도다.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가는 눈이 뿌려진 길에 석양이 비쳐 붉어 보이는 데를 흥

겹게 걸어간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눈 내리는 밤 달이 서쪽 봉우리를 넘도록 소나무 창가에

기대어 즐기자꾸나.

EBS 분석서

20

11

독서



농가 구장

위백규

<1 장>

서산에 도들벧 셔고 굴움은 느제로 낸다.

비 뒷 무근 풀이 뉘 밧시 짓터든고.

두어라 차례 지운 날이니 매난 대로 매오리라.

<2 장>

도롱이에 흙의 걸고 뽕 곱은 검은 쇼 물고

고동풀 뜻 머기며 깃들 갓 내려갈 제

어대셔 품진 벗님 함스귀 가자 하난고.

<3 장>

둘러 내자 둘러 내자 긴 밧고랑 둘러 내자.

바라기 역고를 골골마다 둘러 내자.

쉬 짓튼 긴 사래난 마조 잡아 둘러 내자.

<4 장>

<https://atom.ac/books/6518/>

EBS 분석서

ㄹㅇㅍㅌㅕ

독서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벌은 짚 대로 쫓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5 장>

밥그릇에는 보리밥이오 사발의 공익채라.

내 밥 많을세요 네 반찬 적을세라.

먹은 뒤 한숨 잠을 자는 경이야 네오 내오 다를소냐.

<6 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7 장>

면해난 세다래 네다래요 일원벼난 피난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나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야 삼기샀다



〈8장〉

아해난 낮기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 처친다.

새밥 닉을 때에 새 술을 걸릴세라.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자불 때에 호흥(豪興)계워 하노라.

〈9장〉

취(醉)하난이 늘그니요 웃난이 아희로다.

흐튼 순배 흐린 술을 고개 숙여 권할 때에

뉘라셔 흥장고 긴노래로 차례춤을 미루는고.

EBS 분석서

ㄹㅇㅍㅌㅍ

독서



상춘곡

정극인

紅塵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風流를 미칠가 못 미칠가

天地間 男子몸이 날만한 이 하건마는

山林에 묻혀있어 至樂을 모를것가

數間 茅屋을 碧溪水 앞에 두고

松竹 울울리에 風月主人 되었세라

옛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桃李杏花는 夕陽리에 피어있고

綠楊芳草는 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造化神功이 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 일체어니

흥인들 다들소냐 시비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 음영하여

EBS 분석서

ㄹㅇ

ㅍㅌㅍ

독서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정을

알이 없이 혼자로다 이바 이웃들아

산천 구경 가자스라 답청일랑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갖괴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바튀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리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 준중이 비었거든

날더러 아뢰어라 소동 아해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저 뫼이 그것인가

송간 세옥에 두견화를 부치들고

EBS 분석서

ㄹㅇㅍㅌ

독서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춘 만락이 곳곳에 벌려 있네

연하 일휘는 금수를 재뺏는 듯

엿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할사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 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단표 누향에 홀은 혜옴 아니하게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남의 분별 하시는고 우리는 준준하와

대도를 모르어도 인생도 저러하다

소치기 아나이다 송아지 어이 쫓아

녹음간에 절로 내어 이리가락 저리가락

누으락 일어나락 풀잔디 뒤져 먹고

시냇물 흘러 마셔 먹음먹이 박하여도

제 뜻대로 노닐기와 꺾도래 코에 꺾어

저 고삐 굳게 잡아 곧은 낚대 삶은 콩을

배가지 칠지라도 물 같은 더운 별에

EBS 분석서
ㄹㅇㅍㅌㅍ
독서



한거리 마주 메워 코춤은 카니와

흘없게 그지없다 어느 소는 고되고

어느 소는 한가하뇨 일시에 빛나가야

희생만 할건가 헌 덕석 벗기 치고

금의 삼정 갈아 덮어 샷구레 벗기 치고

홍사로 얽어 내어 대로에 벽제하고

예관이 고삐 잡아 태묘를 들어 가서

포정의 큰 도채에 골절이 제곱 나니

저더러 물어 보면 어느소 되랴할고

고금에 어질기야 공부자만 할까마는

광인이 욱 보시고 진채에 싸이시여

목탁이 되어겨사 도로에 늪으시니

전 사람 이른 말이 그 아니 윙툏던가

부차의 촉루검을 오자서를 준단 말가

서산 저문 날에 비풍이 스슬하다

무안군 백기는 이룬 공도 하건마는

두우역 하라 나재 칼을 주어 죽이더고

EBS 분석서

ㄹㅇㅍㅌㅌ

독서



이사는 승상으로 보수를 다한 후에

부귀도 극진하고 영총도 무한터니

상채 동문에 누런 개를 슬퍼하네

나는 새 진한 후면 양궁이 장하이고

토끼를 잡은 후에 산영개 아랑곳가

한신의 공적으로 삼족조차 죽이더고

문인은 예로부터 공상이요 박명이라

만장 광염이 니 된들 월가마는

고신 거국에 야량이 몇 천리요

성도 초당에 성계도 소조하다

한창려 문장으로 동정 춘풍에

물결이 일어나니 조주 팔천리에

고국이 어드메요 지하로 옷을 하고

난초도 셋거 차고 이소 구가의

문자는 종건마는 초강 밝은 달에

한원이 슬피 우니 장상 문장이

그 아니 섬겨우냐 산중에 사향 느니

EBS 분석서

ㄹㅇㅍㅌ

독서



깊이는 있건마는 춘풍이 헌사하여

향내를 불러 내어 산하에 날랜 살을

면하기 어렵거던 군미끼 혈낙시를

어히하여 따르는다 기산에 귀 씻기와

상류의 소 먹이기 즐겁고 즐거움을

너희는 모르리라 내 노래 한 곡조를

불러든 들어 보소 장안을 돌아보니

풍진이 아득하다 부귀는 부운이요

공명은 와각이라 이 통소 한 곡조에

행화춘을 찾으리라

EBS 분석서

ㄹㅇㅍㅌㅕ

독서



속미인곡

정철

데 가는 데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天塹上尙 白帛玉옥京경을 엇디하야 離니別별하고,

히 다 더 저믄 날의 놀을 보러 가시논고.

어와 네 여이고 내 스설 드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혼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구똥써지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심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빠허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워 필터 헤니 造造物물의 타시로다.

EBS 분석서

ㄹㅇ

ㅍㅌ

독서



글란 상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7톤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春춘寒한苦고熱열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秋추日일冬동天천은 뉘라셔 뵈섯는고.

粥죽무조飯반 朝조夕석 뵈 네와 곳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좁은 엇디 자시논고.

님다히 消消息식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마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뵈히 올라가니

구름은크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山山川천이 어둡거니 日日月월을 엇디 보며

咫지尺척을 모르거든 千천里리를 바라보라.

EBS 분석서

리
오
포
트

독서



출하리 물그의 가 비 길히나 보자 하니

부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느니.

江강川천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 다히 消息息식이 더욱 아득한더이고.

茅모簷첨 촌 자리의 밤둥만 도라오니

半반壁벽靑청燈등은 늘 위하야 불갓느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力력盡진하야 풋좁을 잠간 드니

精精誠성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玉옥 그튼 얼구리 半반이 나마 늘거세라.

마옴의 머근 말숨 슬크장 숲자 하니

눈들이 바라 나니 말숨인들 어이 하며

情정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鷄계聲성의 좁은 엇디 씨뚫던고.

EBS 분석서

리 오 포 트

독서



EBS분석서 리오포트

어와, 虛허事스로드.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ㅼ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ㅼ이로드.

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窓창 안히 ㅼ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ㄹ이야ㄹ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EBS 분석서

리 오투

포트

독서



선상탄

박인로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니실시

을사 삼하(乙巳三夏)애 진동영(鎭東營) 느려오니

관방 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라

일장검(一長劍) 비기 촌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여기 진목(厲氣瞋目)하야 대마도(對馬島)를 구어보니

부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허잇고

아득흔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 빗칠쇠

선상(船上)에 배회(船上)하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하고

어리 미친 회포(懷抱)애 현원씨(軒轅氏)를 애드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돌려시니

진실로 비 아니면 풍파만리(風波萬里) 맞기

어니 사이(四夷) 엇볼넌고

무슴 일 하려 하야 비 못기를 비롯흔고

만세 천추(萬世千秋)애 7업슨 큰 폐(弊)되야

보천지하(普天之下)애 만민원(萬民怨) 길우는다



어즈버 씨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비 비록 잇다 ㅎ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 대마도(日本對馬島)로 빈비 절로 나올년가

뉘 말을 미더 듣고 동남 동녀(童南童女)를 그디도록 드려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두고

통분(痛憤) ㅎ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애 다 밋나다

장생 불사약(長生不死藥)을 얼미나 어더 니여

만리장성(萬里長城) 놓히 사고 몇 만년(萬年)을 사도션고

놉디로 죽어가니 유익(有益) ㅎ 줄 모르도다

어즈버 싱각 ㅎ니 서불 등(徐市等)이 이심(己甚) ㅎ다

인신(人臣)이 되야서 망명(亡命)도 ㅎ는것가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주사(舟師)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두어라 기왕 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 ㅎ로소니

속절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잠사 각오(潛思覺悟) ㅎ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황제 작주거(黃帝作舟車) ㅎ 윈 줄도 모르로다



장한 강동(張翰江東)애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 해활(天淸海濶) 허다

어니 흥(興)이 절로 나며 상공(三公)도 아니 밧골

제일 강산(第一江山)애 부평초(浮萍草) 곳 혼 어부 생애(漁夫生涯)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아디 부쳐 든힐논고

일언 날 보건던 비 삼긴 제도(制度)야

지묘(至妙) 혼 덧 허다마는 엇디 혼 우리 물은

낙는 듯 혼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빗기 특고

임풍 영월(臨風咏月)호디 흥(興)이 전혀 업는게오

석일 주중(昔日舟中)에는 배반(杯盤)이 낭자(狼籍)터니

금일 주중(今日舟中)에는 대검장창(太劍長鎗)뿐이로다

혼 가지 비언마는 가진 비 다라니

기간 우락(其間憂樂)이 서로 곳지 못 허도다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상시 노루(傷時老淚)를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느다

오동방 문물(吾東方文物)이 한당송(漢唐宋)애 디라마는

국운(國運)이 불행(不幸) 허야 해추흥모(海醜兇謀)애



만고수(萬古羞)을 안고이셔

백분(百分)에 한 가지도 못 시셔 부러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한들 신자(臣子) | 되야 이섯다가

궁달(窮巷)이 길이 달라 문 뒹고 늘거신들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니 각(刻)애 이즐넉고

강개(慷慨) 계운 장기(狀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하다마는

도고마는 이 몸이 병중(病中)에 드러시니

설분 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한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좃고

발 업슨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

한들며 이 몸은 수족(手足)이 그자잇고 명맥(命脈)이 이어시니

서절 구투(鼠竊狗偷)을 저그나 저홀소나

비선(飛船)에 돌려드러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 상풍(九十月霜風)에 낙엽(落葉)가치 헤치리라

칠종칠금(七縱七禽)을 우린들 못할 것가

준피 도이(蠢彼島夷)들아 수이 걸항(乞降)해야스라

항자 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티 섬멸(殲滅)하라



오왕 성덕(吾王聖德)이 욕병생(欲并生) ㅎ시니라

태평 천하(太平天下)애 요순군민(堯舜君民) 되야 이셔

일월 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朝復朝) ㅎ앗거든

전선(戰船) ㅌ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애 창만(唱晩) ㅎ고

추월 춘풍(秋月春風)애 낱히 베고 누어 이셔

성대 해불 양파(聖代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ㅎ노라

EBS 분석서

ㄹㅇ

ㅍㅌㅌ

독서



원산아리랑(신고산 타령)

신고산이 우루루 함흥 차 가는 소리에

구고산 큰애기 반봇짐만 싣다

(후렴)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가을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 지고요

귀뚜라미 슬피 울어 남은 간장 다 썩이네

휘늘어진 낙락장송 휘어 덩석 잡고요

애달픈 이내 진정 하소연이나 할까나

삼수갑산 머루 다래는 얽으려 얽으려졌는데

나는 언제 입을 얽으려 얽으려지느냐

상갯골 큰애기 정든 임 오기만 기다리고

삼천만 우리 동포 통일되기만 기다린다

가지 마라 잡은 손 야멸차게 떼치고

감사댕기 팔라당 후치령 고개를 넘노다

EBS 분석서

ㄹㅇ

ㅍㅌㅍ

독서



올직한 심회를 풀 길이 없어 나왔더니

처량한 산새들은 비비배배 우노나

EBS 분석서

리 오후

포 테

독서



밀양 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설달 꽃 본듯이 날 좀 보소

(후렴: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밀양의 아랑각은 아랑뉘를 위로코 진주의 의암은 논개충절 빛내네

저 건너 대 숲은 의의한데 아랑의 설운 녀이 애달프다

아랑의 굳은 절개 죽음으로 씻었고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난다

EBS 분석서
2016
포인트
독서



방물가

서방(書房)님 정(情) 떼고 정(正) 이별(離別)한대도 날 버리고 못 가리라

금일 송군(送君) 임 가는데 백년소첩(百年小妾) 나도 가오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가오

한양낭군(漢陽郎君)님 날 다려가오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제일명당(第一名堂) 터를 닦아 고대광실(高臺廣室) 높은 집에

내외분합(內外分閤) 물림되며 고불도리 선자(扇子) 추녀 형당그렇게 지어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연지분(胭脂粉) 주랴 면경(面鏡) 석경(石鏡) 주랴 옥지환(玉指環) 금봉차(金鳳釵)

화관주(花冠珠) 땀 머리 칠보(七寶) 족두리 하여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세간

치례(致禮)를 하여나 주랴

용장(龍幟) 봉장(鳳幟) 귓도리 책상이며 자개 함룡(函籠) 반다지 삼층 각계수리 이층(二層) 들미장(櫛)에

원앙금침(鴛鴦衾枕) 잣베게 셋별 같은 쌍요강(雙尿江) 발치발치 던져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의복 치례(衣服致禮)를 하여나 주랴

보라[藍色] 항릉(亢綾) 속저고리 도리볼수 겹저고리 남문대단 잔솔치마 백방수화주 고장바지 물면주

단속곳에 고양 나이 속버선에 몽고삼승 겹버선에 자지 상직 수당혜(繡唐鞋)를 명례궁(明禮宮) 안에 맞추어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노리개 치례를 하여나 주랴



은(銀)조로롱 금(金)조로롱 산호(珊瑚)가지 밀화불수(蜜花佛手) 밀화장도(蜜花粧刀) 곁칼이며 삼천주
바둑실을 남산(南山)더미만큼 하여나 주랴 나는 싫소 나는 싫소 아무것도 나는 싫소 고대광실도 나는 싫고
금의옥식(錦衣玉食)도 나는 싫소 원앙충충 걷는 말에 마부담(馬負擔)하여 날 다려 가오

EBS 분석서

ㄹㅇ

ㅍㅌ

독서



남과탄

정약용

| | |
|--------------------------|---------|
| 긋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 苦雨一旬徑路滅 |
| 성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져 | 城中僻巷烟火絕 |
| 태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내 돌아와 | 我從太學歸視家 |
| 문안에 들어서자 시골시골 야단법석 | 入門譁然有饒舌 |
| 들어 보니 며칠 전에 끼닛거리 떨어져서 | 聞說罌空已數日 |
| 호박으로 죽을 쑤어 허기진 배 채웠는데 | 南瓜鬻取充哺歎 |
| 어린 호박 다 땀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 早瓜摘盡當奈何 |
|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 晚花未落子未結 |
|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의 호박 보고 | 隣圃瓜肥大如瓠 |
|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 小婢潛窺行鼠竊 |
|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는 야단 | 歸來效忠反逢怒 |
| 누가 네게 훔치랬냐 회초리 꾸중 호되네 | 孰教汝竊箠罵切 |
|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 嗚呼無罪且莫嗔 |
|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 我喫此瓜休再說 |
| 밭 주인에게 뗏뗏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 爲我磊落告園翁 |



오릉 중자 작은 청렴 내 아니 달갑다네 於陵小廉吾不屑

나도 장차 때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會有長風吹羽翮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不然去鑿生金穴

만 권 서적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부르랴 破書萬卷妻何飽

밭 두 뼤기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 有田二頃婢乃潔

EBS 분석서

ㄹㅇ

ㅍ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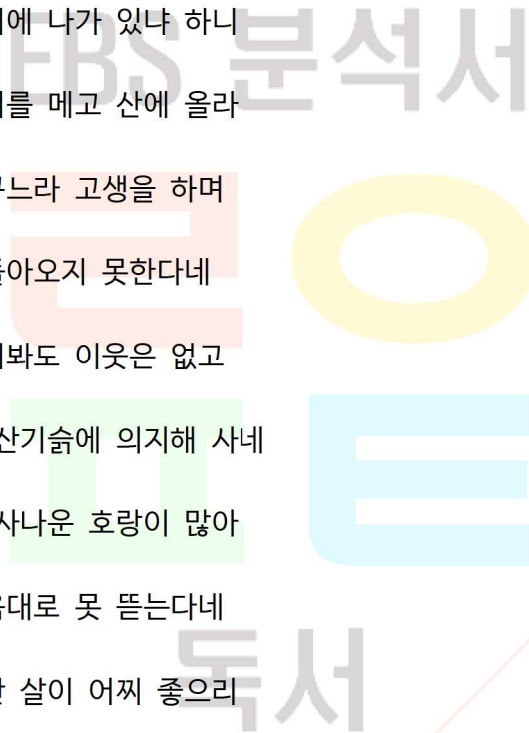
독서



산민

김창협

下馬問人居 하마문인거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婦女出門看 부녀출문간 아낙네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坐客茅屋下 좌객모옥하 띠집처마아래 손을 얹게 하고
 爲我具飯餐 위아구반찬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오네
 丈夫亦何在 장부역하재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냐 하니
 扶犁朝上山 부리조상산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山田苦難耕 산전고난경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日晚猶未還 일만유미환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四顧絕無隣 사고절무린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鷄犬依層巒 계견의층만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中林多猛虎 중림다맹호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採藿不盈盤 채곽불영반 나물도 마음대로 못 뜯는다네
 哀此獨何好 애차독하호 슬프다 외딴 살이 어찌 좋으리
 崎嶇山谷間 기구산곡간 험하고 험한 산골짜에서……
 樂哉彼平土 락재피평토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欲往畏縣官 욕왕외현관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렵다네



곡자

허난설헌

去年喪愛女(거년상애녀) : 지난 해 귀여운 딸을 잃었고

今年喪愛子(금년상애자) :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哀哀廣陵土(애애광릉토) : 서럽고 서러운 광릉 땅이여.

雙墳相對起(쌍분상대기) : 두 무덤이 나란히 마주 보고 있구나.

蕭蕭白楊風(소소백양풍) : 백양나무에는 쓸쓸한 바람 불고

鬼火明松楸(귀화명송추) : 도깨비불은 숲속에서 번쩍인다.

紙錢招汝魂(지전초여혼) : 지전으로 너의 혼을 부르고,

玄酒存汝丘(현주존여구) : 너희 무덤에 술잔을 따르네.

應知第兄魂(응지제형혼) : 아아, 너희들 남매의 혼은

夜夜相追遊(야야상추유) : 밤마다 정겹게 어울려 놀겠지.

縱有服中孩(종유복중해) : 비록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한들

安可冀長成(안가분장성) : 어찌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리오.

浪吟黃埜詞(낭음황대사) : 부질없이 황대 노래를 읊조리다

血泣悲吞聲(혈읍비탄성) : 피눈물로 울다가 목이 메는구나.



일신아 사자 한이 ~

이정보

一身(일신)이 사자 하니 물것 계워 못 견딜쇠

皮(피)겨 가튼 가랑니 보리알 가튼 슈통니 줄인니 갓 깐니 잔 벼룩 굴근 벼룩 강벼룩 倭(왜)벼룩 괴는 놈
뛰는 놈에 𪚩𪚩(비파) 가튼 빈대 삭기 使令(사령) 가튼 등에아비 갈따귀 삼의약이 센 박희 높은 박희 바금이
거절이 부리 뽀족한 모기 다리 기다란 모기 야윈 모기 살진 모기 글임애 뽀룩이 晝夜(주야)로 뵈 뵈 때 업시
물거니 쏘거니 빨거니 뜻거니 甚(심)한 唐(당)빌리 이보다 어려우랴

그 中(중)에 차마 못 견딜손 六月(유월) 伏(복)더위에 쉬파린가 하노라.



개를 여라문이나 기리되 ~

개를여라문이나기리되요개갓치얏미오랴

뫼온님오며는 꼬릴화해치며썩락느리썩락반겨서내뫼고

고온님오며는 뒷발을버둥버둥므르락나으락캉캉즈져서도라가게훈다

썩뫼이그릇그릇난들너머길줄이이시랴

EBS 분석서

리 오투

포트

독서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

작자 미상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기 무서시라 웨난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아스스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것이라 하렴은.

EBS 분석서

ㄹㅇ

ㅍㅌㅕ

독서



논밭 가라 기음 매고 ~

논 밭 갈아 기음 매고 뵈잠방이 다임 쳐 신들매고

낮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러매고 무림 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섯을 뷔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질머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點心) 도슌 부시고 곰방대를 툯툯 떨어 뉘담배 뛰여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래 저른 소래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EBS 분석서

ㄹㅇ

ㅍㅌㅌ

독서



정석가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대(先王聖代)에 노니^ㄴ와지이다.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ㄴ'(여음)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ㄴ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 ^ㅎ신 님물 여히^ㄴ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 ^ㅅ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 ^ㅅ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접두(接柱) ^ㅎ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EBS 분석서

ㄹㅇ

ㅍㅌ

독서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논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논

털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디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EBS 분석서

ㄹㅇㅍㅌㅕ

독서



EBS분석서 리오포트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즈문 히를 외오'곰'(강세접미사) 녀신들

즈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EBS 분석서

리 오풀

포 트

독서



올해 달은 다리

김구

올해 다른 다리 학기 다리 되도록애

거문 가마괴 해오라비 되도록애

향복무강(享福無彊) 하샤 억만세(億萬歲)를 누리소서

EBS 분석서

리 오편

포트

독서



이별요

님아 님아 우리 님아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병풍에 그린 님이
꼭교 울면 다시 올래
옹솔에 삶은 밤이
씩이 나면 다시 올래
고목나무 새싹 돋아
꽃이 피면 다시 올래
님아 님아 우리 님아
병자년 보리 흉년에
장내 장아리 옷장 당그며
잔 옛가래 붉은 옛가래
사다 주던 우리 님아
어데 가서 올 줄도 모르는고
용 가는 데 구름 가고
비 가는 데 바람 가고
님 가는 데 나는 가오

EBS 분석서 리 오 포 트 독서



출새곡

조우인

북방 이십여주에 경성이 문회러니
 치병 목민을 날을 맞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을 갑플 일이 어려워라
 서생 스업은 한묵인가 너기더니
 백수 님변이 진실노 의외로다
 인정전 비스하고 칼흘 잡고 도라셔니
 만리 관하의 일신을 다 닛과라
 흥인문 니다라 녹양의 물을 ㄱ니
 은한 넷 길흘 다시 지나 간단 말아
 회양 네 스실 기별만 드럿더니
 금달을 외오 두고 적각은 무슴 죄고
 참암 철령을 험튼 말 전혀 마오.
 세도를 보거든 평딘가 너기노라.
 눈물을 베삿고 두어 거름 도라 셔니
 장안이 어디오 옥경이 ㄱ리거다
 안변 이북은 저즘씩 호디러니
 신소 성전하야 벽국 천리하니
 윤관 종서의 풍공 위렬을
 초목이 다 아는다
 용흥강 건너 드러 정평부 잠깐 지나

북방(北方) 이십여주(二十餘州)에 경성(鏡城)이 門戶(문호)이러니
 치병 목민(治兵 牧民)을 나를 맡겨 보내시니
 망극(罔極)한 성은(聖恩)을 갑을 일이 어려워라.
 서생(書生) 사업(事業)은 한묵(翰墨)인가 여기더니,
 백수 임변(白首 臨邊)이 진실로 의외(意外)로다.
 인정전(仁政殿) 배사(拜辭)하고 칼을 잡고 돌아서니
 만리(萬里) 관하(關下)에 일신(一身)을 다 잊겠구나.
 흥인문(興仁門) 내달아 녹양(綠楊)에서 말을 갈아타니,
 은한(銀漢) 옛 길을 다시 지나 간단 말인가.
 회양(淮陽) 옛 사실(事實) 기별(寄別)만 들었더니
 금달(禁闕)을 외롭게 두고 적객(謫客)은 무슴 죄인고.
 참암 철령(嶋巖 鐵嶺)을 험(險)하단 말 전혀 마오.
 세도(世道)를 보거든 평지(平地)인가 여기노라.
 눈물을 내어쏟고 두어 걸음 돌아 셔니
 장안(長安)이 어디인가, 옥경(玉京)이 가리었구나.
 안변(安邊) 이북(迤北)은 저기쯤 호지(胡地)러니,
 신소 성전(迅所 腥膻)하여 벽국(鬪國) 천리(千里)하니,
 윤관(尹瓘) 종서(宗書)의 풍공(豐功) 위렬(偉烈)을
 초목(草木)이 다 아는구나.
 용흥강(龍興江) 건너 들어 정평부(定平府) 잠깐 지나



만세교 압희 두고 낙민누희 올라 안자
 옥저 산하를 면면히 도라보니
 천년 풍패에 울창 가기는
 어제론 덧 하여세라.
 함관녕 저문 날의 물은 어이 병이 듣고
 만면 풍사의 갈 길히 머리세라
 홍원 고현의 천도를 바라보고
 대문녕 너머 드러 청희진에 드러오니
 일도 후설이요, 남북 요충이라
 신신 정졸로 니병을 베퍼시며
 강궁 경노로 요해를 디키는 듯
 백년 승평에 민불 지병하니
 등문 디포를 닐너 므슴 하리오
 거산역 디나 드러 시둥디 올라 안자
 디척 부상의 일출을 구버 보고
 당송 십리 싘헤 정마를 다시 봐와
 단천을 겨티 두고 슌디헌을 츠자 가니
 백기 청풍을 다시 본 듯 훈데이고
 마운녕 채 쳐 너머 마곡역 물을 쉬워
 적설 마천을 허위허위 너머 드니
 진관이 어디고 촉잔이 여기로다
 성딘 설딘이 형세는 도쿄니와
 난후 변민이 고헤이 물나시니

만세교(萬歲橋) 앞에 두고, 낙민루(樂民樓)에 올라 안자
 옥저(沃沮) 산하(山河)를 면면(面面)히 돌아보니
 천년(千年) 풍패(豐沛)에 울창(鬱蒼) 가기(佳氣)는
 어제인 듯하여라.
 함관령(咸關嶺) 저문 날에 말은 어이 병이 듣고.
 만면(滿面) 풍사(風沙)의 갈 길이 멀었구나.
 홍원(洪原) 고현(高縣)에 천도(穿島)를 바라보고,
 대문령(大門嶺) 넘어 들어 청해진(靑海鎭)에 들어오니
 일도(一道) 후설(喉舌)이요, 남북(南北) 요충(要衝)이라.
 신신 정졸(信臣 精卒)로 이병(利兵)을 베풀었으니
 강궁 경노(強弓 勁弩)로 요해(要害)를 지키는 듯
 백년(百年) 승평(升平)에 민불지병(民不知兵)20)하니
 등문(重門) 대포(待暴)를 일러 무엇 하리오.
 거산역(居山驛) 지나 들어 시중대(侍中臺) 올라 앉아
 지척 부상(咫尺 扶桑)에 일출(日出)을 굽어보고
 장송(長松) 십리(十里) 길에 정마(征馬)를 다시 보아
 단천(端川)을 곁에 두고 사지헌(四知軒)을 찾아 가니
 백기 청풍(伯起 淸風)을 다시 본 듯 하였구나.
 마운령(磨雲嶺) 채 쳐 넘어 마곡역(麻谷驛) 말을 쉬어
 적설 마천(積雪 磨天)을 허위허위 넘어 드니
 진관(秦關)이 어디인가, 촉잔(蜀棧)이 여기로다.
 성진(城津) 설진(設鎭)이 형세(形勢)는 좋거니와
 난후(亂後) 변민(邊民)이 고헤(膏血)이 말랐으니



묘당 육식은 아는가 모르는가
 백두산 일맥이 당백산 되어 이서
 천리를 한격하야 강역을 논했거든
 진보 성나하고 군읍이 기포하니
 표리 천험은 장호미 그지업다
 연천 창희에 풍설이 섰티는디
 발섭 기구하야 목랑성의 드러오니
 천심 분첩은 반공의 빗겨 잇고
 백장 심호는 사면의 둘러서니
 인화를 어들선정 디리아 부족할까
 원문이 무사하고 막부 한가한 제
 동산 휴기하고 북해준을 거홀우랴
 연화 삼월의 원수대에 올라가니
 춘풍 이탕하야 숙경을 부쳐 내니
 만수 천림은 홍금이 되어 잇고
 운도 설랑은 하늘을 ㄱ을 사마
 분박 뇌정하야 디 압희 물너디니
 은산이 거뒸는가 옥설을 날리는가
 깃 ㄱ탄 잠씩예 백운 ㄱ튼 솔을 치고
 천양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백대 홍장은 좌우의 버러 이서
 진쟁 조슬을 타거니 흔들거니
 호치 세요로 추거니 부르거니

묘당(廟堂) 육식(肉食)은 아는가, 모르는가.
 백두산(白頭山) 일맥(一脈)이 장백산(長白山) 되어 있어
 천리(千里)를 한격(限隔)하여 강역(疆域)을 나누었거든
 진보(鎭堡) 성라(星羅)하고 군읍(郡邑)이 기포(碁布)하니
 표리(表裏) 천험(天險)은 장(壯)함이 그지업다.
 연천(連天) 창해(滄海)에 풍설(風雪)이 섞어 치는데
 발섭(跋涉) 기구(崎嶇)하여 목랑성(木郎城)에 들어오니
 천심(千尋) 분첩(粉蝶)은 반공(半空)에 비껴 잇고
 백장(百丈) 심호(深濠)는 사면(四面)에 둘러서니
 인화(人和)를 얻을지언정 지리(地利)야 부족(不足)할까.
 원문(轅門)이 무사(無事)하고 막부(幕府)가 한가(閑暇)할 제
 동산(東山) 휴기(携妓)하고 북해준(北海鑪)을 거홀우랴.
 연화(烟花) 삼월(三月)에 원수대(元帥臺)에 올라가니
 춘풍(春風) 이탕(飴蕩)하여 숙경(淑景)을 부쳐 내니
 만수 천림(萬樹 千林)은 홍금(紅錦)이 되어 잇고
 운도 설랑(雲濤 雪浪)은 하늘을 경계 삼아
 분박 뇌정(噴薄 雷霆)하여 대(臺) 앞에 무너지니
 은산(銀山)이 거뒸는가 옥설(玉屑)을 날리는가.
 깃 같은 잔디에 백운(白雲) 같은 솔을 치고
 천양 묘기(穿揚 妙妓)로 승부를 다투거든
 백대 홍장(百隊 紅粧)은 좌우(左右)에 벌려 있어
 진쟁 조슬(秦箏 趙瑟)을 타거니 흔들거니
 호치 세요(皓齒 細腰)로 추거니 부르거니



쇼화도 그디업고 풍경이 무딘하니

소화(韶華)도 그지없고 풍경(風景)이 무진(無盡)하니

일춘 흥낙이 슬미염즉 허다무는

일춘(一春) 행락(行樂)이 싫증난 즉 한다마는

향관을 바라보니 오령이 가려 있고

향관(鄉關)을 바라보니 오령(五嶺)이 가려 있고

이디 산천은 늑딘이 거의로다

이지(異地) 산천(山川)은 육진(六鎭)이 거의로다.

명시 덕관이 도처의 군은이로디

명시(明時) 적관(謫官)이 도처(到處)에 군은(君恩) 이로되

원신 금전을 뉘 아니 슬허하며

원신(遠身) 금전(金殿)을 뉘 아니 슬퍼하며

중입 슈문을 어이하여 期必 홀고

중입 수문(重入 修門)을 어이하여 기필(期必)18) 할까.

평싱 먹은 쓰디 전혀 업다 할가마는

평생(平生) 먹은 뜻이 전혀 없다 할까마는

시운의 타시런가 명도의 미엇는가

시운(時運)의 타이런가, 명도(命途)에 매엇는가.

딘디 백슈의 세월이 쉬이 가니

진대 백수(秦臺 白首)에 세월(歲月)이 쉬이 가니

초택 청빈은 원스도 한 제이고

초택 청빈(楚澤 靑蘋)은 원사(怨思)도 한 제이고.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 닛다 하니

이 잔(盞) 가득 부어 이 시름 잊자 하니

동명을 다 퍼내다 이 내 시름 어이 홀고

동명(東溟)을 다 퍼내다 이 내 시름 어이 할까.

어뵈 이 말 듯고 낙디를 돌너 메고

어부(漁夫)가 이 말 듣고 낚싯대를 둘러메고

비 써 두드리고 노래를 부른 말이

뱃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세스를 니전디 오라니 몸조차 니전노라

세사(世事)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백스 싱애는 일간죽 써이로다

백사(百事) 생애(生涯)는 일간죽(一竿竹)3) 써이로다.

백구는 나와 버디라 오명 가명 허는다

백구(白鷗)는 나와 벗이라, 오명 가명 하는구나.



유원십이곡

안서우

내 마음 저버야 남의 생각하니

나 슬흐면 남슬코 남 도흐면 나 도흐니

모로미 기소불염(己所不念)을 물시어인(勿施於人)하리다. (序章)(프롤로그)

문장(文章)을 하자하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공맹(孔孟)을 배호려 하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이로다

이 내 몸 쓸 데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 1 장)

청산(靑山)은 무스 일노 무지(無知)한 날갓타며

녹수(綠水)는 엇지하야 무심(無心)한 날 가타뇨

무지(無知)타 웃지 마라 요산요수(樂山樂水)할가 하노라. (제 2 장)

홍진(紅塵)에 절교(絶交)하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하야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가니

이 등의 무한지락(無限之樂)을 헌사할가 하노라. (제 3 장)



경전(耕田)하야 조석(朝夕)하고 조수(釣水)하야 반찬(飯饌)하며

장요(長腰)의 하겸(荷鎌)하고 심산(深山)의 채초(採樵)하니

내 생애(生涯) 이뿐이라 뉘라셔 다시 알리. (제 4 장)

내 생애(生涯) 담박(澹泊)하니 그 뉘라셔 차차 오리

입오실자(入吾室者) 청풍(淸風)이오 대오음자(對吾飲者) 명월(明月)이라

이 내 몸 한가(閑暇)하니 주인(主人) 될가 하노라. (제 5 장)

인간(人間)의 벗 있단말가 나는 알기 슬희여라

물외(物外)에 벗 업단말가 나는 알기 즐거워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하노라. (제 6 장)

영산(嶺山)의 백운기(白雲起)하니 나는 보되 즐거워라

강중(江中) 백구비(白鷗飛)하니 나는 보되 반가왜라

즐기며 반가와 하거니 내 벗인가 하노라. (제 7 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할손 아마도 풍진붕우(風塵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할손 아마도 강호구로(江湖鷗鷺)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를 깨다른가 하노라. (제 8 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할 제와 태부(太傅) 걸해귀(乞骸歸)할 제

호연행색(浩然行色)을 뉘 아니 부러하리

알고도 부지지(不知止)하니 나도 몰나 하노라. (제 9 장)

내 마음 정(定)한 후(後)니 위빈이사(爲貧而仕) 거즌말이

내 몸을 자전(自專)티 못하니 위친이굴(爲親而屈)이 올흔 말이

이제나 양극전성(養極專城)하니 도라갈가 하노라. (제 10 장)

인간(人間) 풍우(風雨) 다하니 므스일 머므느뇨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하니 므스일 아니 가리

이제는 가려 정(定)하니 일흥(逸興)계워 하노라. (제 11 장)



EBS분석서 리오폐트

먹거든 머지 마나 멀거든 먹지 마나

멀고 먹거든 말이나 하련마는논

입조차 방어리되니 말 못하여 하노라 (제 12 장)

EBS 분석서

리 오편

포트

독서



월야침향로

혜초

月夜瞻郷路 浮雲颯颯歸

월야침향로 부운삽삽귀

緘書參去便 風急不聽迴

함서삼거편 풍급부청회

我國天岸北 他邦地角西

아국천안북 타방지각서

日南無有雁 誰爲向林飛

일남무유안 수위향림비

달밤에 고향 가는 길 바라보니

뜬구름만 바람에 등실등실 흘러가는구나.

구름이 가는 편에 편지를 보내려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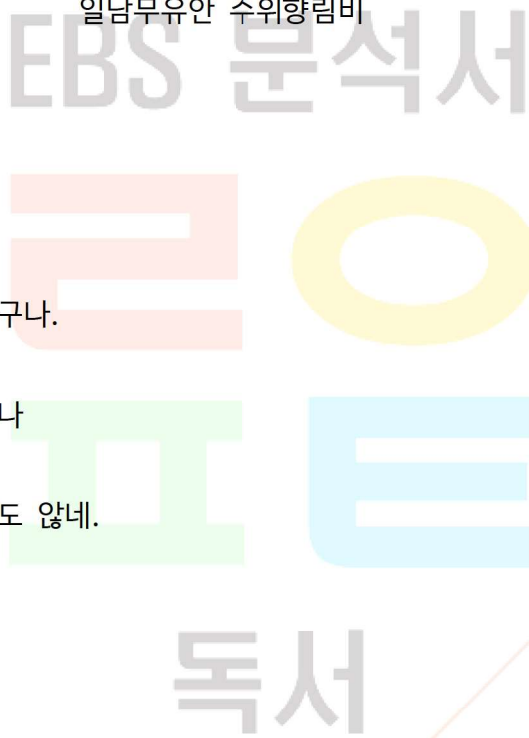
바람이 너무 빨라 돌아오란 말 듣지도 않네.

우리나라는 저 하늘 북쪽에 있고

타국은 땅 모퉁이 서쪽이구나.

해 뜨는 남쪽에는 기러기도 없으니

누가 나를 위해 고향 숲 향하여 날아가 주라



춘설유감

최명길

絶域逢春未覺春

이역에서 맞는 봄은 봄인 줄 모르겠더니

朝來驚見雪花新

이 아침에 내리는 눈꽃 놀라서 바라보네

莫將外物爲欣感

외물에 기쁘지도 슬프지도 말지니

春意分明在此身

봄기운 분명히 내 몸 안에 있으니

EBS 분석서

ㄹㅇ

ㅍㅌㅍ

독서



수능완성 현대운문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EBS 분석서
이기철, 청산행

운동주, 바람이 불어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기형도, 가을 무덤-제망매가

이동순, 개밥풀

박두진, 설악부

이건청, 하류

조지훈, 흙을 만지며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정희성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 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EBS 분석서 리오포트 독서



청산행

이기철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人家)를 내려다 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南方)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野性)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 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 오르고
생목(生木)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EBS 분석서
2011
독서



바람이 불어

윤동주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주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주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EBS 분석서

리오포테

독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 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연나눔)

EBS 분석서
ㄹㅇㅍㅌㅕ
독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얇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 원때문에 10 원때문에 1 원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 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EBS 분석서

ㄹㅇㅍㅌ

독서



산문(山門)에 기대어

송수권

누이야

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 가면

즈믄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오던 것을

더러는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더러는 앞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날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옴을

EBS 분석서
크
오
포
트
독서



가을 무덤-제망매가

기형도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라

시리도록 허연

이 霧下(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풀씨마저 피해 날으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 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걸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나온다.

(연바꿈)

EBS 분석서

리 오

포 테

독서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경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왜라서 그리도 손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짙절한 설움을 빨았더냐.

아침은 항상 우리 뒷켄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칩.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河口(하구)로 떠내려갔음에랴.

우리는
神經(신경)을 앓는 中風病者(중풍병자)로 태어나
全身(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신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랴.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나

EBS 분석서

ㄹㅇㅍㅌ

독서



개밥풀

이동순

아닌밤중에 일어나
 실눈을 뜨고 논귀에서 쿵쿵거리며
 맵도는 개밥풀
 떠도는 발끝을 물밑에 닿으려 하나
 미풍에도 저희끼리 밀리며
 논귀에서 맵도는 개밥풀
 방계 물장군들이 지나가도
 결코 스크램을 푸는 일 없이
 오히려 그들의 등을 타고 앉아
 휘파람 불며 불며 저어가노라
 벗집 사이로 빠지는 열기
 음력 사월 무논의 개밥풀의 함성
 논이 수확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더니
 어느 날 큰 비는 우리를 뿔뿔히 흩어놓았다
 개밥풀은 이리저리 전복되어



도처에서 그의 잎파랑이를 햇살에 날리우고

더러는 장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어디서나 휘몰리고 부딪치며 부서지는

개밥풀 개밥풀 장마 끝에 개밥풀

자욱한 벚집에 가려 하늘은 보이지 않고

논바닥을 파헤쳐도 우리에게엔 그림자가 없다

추풍이 우는 달밤이면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옷깃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귀뚜라미 방울새의 비비는 바람

그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씨앗이 굶어도 개밥풀은 개밥풀

너희들 봄의 번성을 위하여

우리는 겨울 논바닥에 말라붙는다.

EBS 분석서

2011

독서



설악부

박두진

1

부여 안은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훑날린다. 골이고 봉우리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나는 예가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파랗게 하늘이 열었다. 하늘에 나는 후-- 입김을 뿜어 본다. 스러지며 올라간다. 고요-- 하다.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 태고에 놓여있다.

2

왜 이렇게 자주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걸까? --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쪽에 묻힌다. 외롭게 묻힌다.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포기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려라. 한마리 멧새도 와 울어라. 달밤엔 杜鵑? 杜鵑도 와 울어라.

언제 새로 다른 태양,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復活할 것도 믿어본다.

3

나는 눈을 감아본다. 순간 번뜩 영원이 어린다..... 인간들! 지금 이 땅위에서 서로 아우성 치는 수 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멀하지 않고 오래 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우리 족속도 이어 자주 나며 죽으며, 멀하지 않고, 오래 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언제 이런 설악까지 원통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루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그립다.



하류

이건청

거기 나무가 있었네.

노을 속엔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네.

붉은 노을이 금관 악기 소리로 퍼지면

거기 나무를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 하늘 아래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네.

발 뒤축을 들고 바라보았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희미한 하류로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네.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일만 마리 매미 소리로

그들을 만들어 주었네.

EBS 분석서

ㄹㅇ

ㅍㅌㅕ

독서



모든 대답이 거기 있었네,
그들은 백사장이고 시냇물이었으며
빨기풀이고 뚝부기 알이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버렸지만
등치마저 타버려 재가 돼 버렸지만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던 노을
스쳐가는 늦 기러기 몇 마리 있으리
귀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까마득한 하루에 나무가 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EBS 분석서

리오포트

독서



흙을 만지며

조지훈

여기 피비린 옥루(玉樓)를 헐고
따사한 햇살에 익어 가는
초가삼간(草家三間)을 나는 짓자.

없는 것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외로움이 그물을 치나.

허공에 박힌 화살을 뽑아
한 자루 호미를 베투어 보자.

풍기는 흙냄새에 귀기울이면
뉘우침의 눈물에서 꽃이 피누나.

마지막 돌아갈 이 한 줌 흙을
스며서 흐르는 산골 물소리.

여기 가난한 초가를 짓고
푸른 하늘이 사철 넘치는
한 그루 나무를 나는 심자.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사랑이 그물을 치나.

EBS 분석서
2011
포인트
독서



수능완성 고전운문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정철, 관동별곡

정훈, 우활가

신흥, 냇가에 해오라바

곰병이 매암이 되야

이이, 고산구곡가

사제가

독서



월선헌십육경가

신계영

오산서 외로운 묵음이 내의 도구로다
 석전 모옥애 종로호라 기약터니
 명강이 힘이 이셔 심재를 분주하니
 천장 흥진애 검은 머리 다 세거다
 전원이 거출거든 송국을 뉘 갖고며
 구맹이 차 잇거니 학원이라 업술소냐
 여관 청등애 장식음을 제 뉘알리
 환해 풍량이 즐연히 니러나니
 조어흔 고종이 죄는 어이 짓도던고
 명시 부견하야 더딘 몸이 되야시니
 지지흔 행색이 권련하다 어이 흐리
 서호 구업애 필마로 도라오니
 적막흔 황촌애 파옥수간 뿐이로다.
 어와 이 생애 이리 하야 어이 흐리
 원림 노픈 고덕 | 소당을 지어내니
 현창이 소쇄흔드 | 안계조차 너늘시고
 삼경 송황은 새 빛출 띄여 잇고
 십리 강산이 망중의 버러시니
 월호 풍령애 일 업시 비겨 이셔
 듯거니 보거니 승취도 하고만타
 호천 봄 빗치 두병조차 도라 오니



양파 7는 풀이 새 엄이 푸르렀고
 사정 약한 버들 넷 가지 누울 저귀
 강성 느른 빗발 긴 들흐로 건너 오니
 청상 흰 더 경계 시흥도 돕거니와
 약포 산전을 하매면 가리로다
 이바 아흔 | 들아 쇼 조히 머겨스라
 여와씨 하늘 깃던 늙은 돌히 나마 이셔
 서창 밧 지척의 난봉이 되어서니
 싸커니 셔거니 기괴도 흥터이고
 장송 훗선 속의 포기마다 고지 피니
 적성 아적 비에 불근 안개 저젓는 듯
 술 초고 노는 사름 빈 날 업시 올라가니
 난만한 춘광이 몇 가지나 상뚝던고
 금오산 십이봉이 대야의 둘러서니
 녹는 듯 머무는 듯 기상도 기승한다
 다사흔 청람이 취대에 빗겨 이셔
 모드락 훗드락 태도도 할셔이고
 창연흔 진면목이 보이는 듯 숨는 양은
 용면묘수로 수목병을 그렸는 듯
 잔화는 불셔 디고 백일이 점점 기니
 낭제 눈엽이 개 그늘 어릴 저귀
 형비를 기리 닳고 낮춤을 잠깐 드니
 교만한 꿩고리 깃 | 울 줄이 무슨 일고

EBS 분석서
 2016
 독서



괴피 7는 길혀 | 초연이 기픈 고드 |

목적 삼룡성이 한흥을 도와 낸다

오서산 두렸흔 봉 반공의 다하시니

건곤 원기를 네 혼자 타 잇고야

조모애 줌긴 안개 바라보니 기이하다

몇번 시우 되야 세공을 일웠는다

오동 납히 디고 흰 이늘 서리 되니

서담 김픈 곳에 추생기 느껴 있다

천림 금엽이 이월화를 브를소냐

동녘 두던 밧기 크나 큰 너븐 들혀 |

만경 황운이 흰 빗치 되야 있다

중양이 거의로다 녹 | 노리 혀자스라

불근 괴 여물고 누른 둥이 슬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슬소냐

전가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몰래에 밤블이 불가시니

게 잡는 아혀들이 그믐을 훗터 잇고

호두포 엔 구빅에 아적 물이 미러 오니

돛단 벌 | 애내성이 고기 푸는 당스 |로다

경도 뎡커니와 생리라 괴로오랴

7을히 다 디나고 북풍이 노피 부니

긴 하늘 너븐 들혀 | 모셜이 녹니더니

이육고 경락이 각별흔 천지되야

EBS 분석서

2011

독서



원근 봉만은 백옥을 못거 잇고
야당 강촌을 경요로 꾸며시니
조화 헌스흔 줄 이제야 더 알 부 | 라
천기 늄열 햏야 빙설이 싸혀시니
교원 초목이 다 최절 햏얏거늘
창 밧기 심근 매화 암향을 머금엇고
재 우희 셔 잇는 솔 푸른 빗치 의구햏니
분드 | 삼긴 절이 세한 햏다 변흄소냐
압 뵈햏 | 자던 안개 햏긏 빗출 3리오니
죽림의 뵈린 서리 못 미쳐 노갓고야
소로를 나서 햏고 창을 낫고 안자 이셔
일주 청향의 세념이 그쳐시니
단표 뷔다 햏야 흥이야 업숄소냐
내 건너 뵈 뵈 아래 거친 므을 두서 집이
노수 시문애 섯권 3 | 빗겨시니
의희햏 우타리 화도중 3틀시고
우양이 3려 오니 오늘도 저믈거다
석문 노픈 봉애 석양이 불갓는드 |
우리 네는 기러기 가는 듯 도라 오니
형양이 아니로드 | 회안봉은 여긏러가
사포 긴 드리에 오명가명 햏는 행인
어드러 향햏노라 뵈얏비 가늄손다
용산 외로운 덜 언제부터 잇돏던고

EBS 분석서

2018

독서



경자 물근 소르 | 브람 섯거 디나가니
알와라 늘근 중이 예불홀 저기로다
강교 찬 남기 명색이 가다 가니
서아는 느라 들고 프른 모히 멀리 뵈다
한수를 못 금하야 프람을 기리 불고
수죽을 지혀 이셔 들빛출 기들오니
숨 구즌 념구로미 7릴 주리 므스 일고
장풍이 현스하야 옥우를 조히 쓰니
일편 빙륀이 물근 빗치 네로와다
천암 만학의 슬크지 불가시니
단대 늘근 솔이 가지를 헤리로다
소렴을 고타 것고 기픈 밤의 안자시니
동봉 도든 둘이 서령의 거디도록
첨영으 | 츠 | 빗최여 침석의 쏘야시니
녁시 다 몹으니 몽매들 이실소냐
어와 이 청경 갑시 이실 거시런들
적막히 다든 문애 느 | 문으로 드러오니
사조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모재예 빗친 빗치 옥루라 다룰소냐
청준을 바비열고 큰 잔의 7독 부어
죽엽 7는 술를 들빛조차 거후로니
표연흔 일흥이 저기면 놀리로라
이적선 이러하야

EBS 분석서

2011

독서



들을 보고 맞치듯다

춘하 추동애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 조모애 완상이 새로오니

몸이 한가하나 귀 눈은 겨를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륵이나 다름소냐

강호 어조요 | 새 문강세 깊퍼시니

옥당 금마의몽흔이 섰기엿다

초당 연월의 시름업시 누워 이셔

춘추 강어로 종일취를 원하노라

이 몸이 이러구름도 역군은 이샷다

EBS 분석서

리오포트

독서



관동별곡

정철

江湖(강호)애 病(병)이 깊퍼 竹林(죽림)의 누엇더니,
 關東(관동) 八百里(팔백리)에 方面(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恩(성은)이야 가디록 罔極(망극)하다.
 延秋門(연추문) 드리드라 慶會南門(경회 남문) 바라보며,
 下直(하직)고 물너나니 玉節(옥절)이 알피 섰다.
 平丘驛(평구역) 물을 𠵼라 黑水(흑수)로 도라드니,
 蟾江(섬강)은 어디메오, 雉岳(티악)이 여기로다.
 昭陽江(소양강) 𠵼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臣(고신) 去國(거국)에 白髮(백발)도 하도 할샤.
 東洲(동주) | 밤 계오 새와 北窠亭(북관당)의 올라흐니,
 三角山(삼각산) 第一峰(테일봉)이 ㅎ마면 되리로다.
 弓王(궁왕) 大關(대궐) 터히 烏鵲(오작)이 지지괴니,
 千古(천고) 興亡(흥망)을 아난다, 물으는다.
 淮陽(회양) 네 일흠이 마초아 𠵼틀시고.
 汲長孺(급당유) 風彩(풍치)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營中(영중)이 無事(무스)하고 時節(시절)이 三月(삼월)인 제,
 花川(화천) 시내길히 風岳(풍악)으로 버더 잇다.
 行裝(행장)을 다 썰티고 石逕(석경)의 막대 디퍼,
 百川洞(백천동) 겨티 두고 萬瀑洞(만폭동) 드러가니,
 銀(은) 𠵼튼 무지계, 玉(옥) 𠵼튼 龍(룡)의 초리,
 섰들며 썸는 소리 十里(십리)의 𠵼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金강臺(금강대) 민 우屨(층)의 仙鶴(선학)이 샷기 치니,
春風(춘풍) 玉笛聲(옥덕성)의 첫즙을 씨뎡던디,
縞衣玄裳(호의 현상)이 半空(반공)의 소소 쓰니,
西湖(서호) 넷 主人(주인)을 반겨셔 넘노는 듯.

小香爐(소향노) 大香爐(대향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陽寺(정양스) 眞歇臺(진혈대) 고타 올라 안즌마리,
廬山(녀산) 眞面目(진면목)이 여기야 다 보는다.
어와, 造化翁(조화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썬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芙蓉(부용)을 고갯는 듯, 白玉(백옥)을 못것는 듯,
東溟(동명)을 박츠는 듯, 北極(북극)을 괴왓는 듯.

놉홀시고 望高臺(망고대), 외로올샤 穴望峰(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千萬劫(천만겁)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ㄱㅌ니 썬 잇는가.

開心臺(기심대) 고타 올라 衆香城(중향성) 바라보며,
萬二千峰(만이천봉)을 歷歷(력력)히 혀여ㅎ니,
峰(봉)마다 밋쳐 잇고 窅마다 서린 괴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人傑(인걸)을 문들고쟈.
形容(형용)도 그지업고 體勢(테세)도 하도 할샤.



天地(턴디) 삼기실 제 自然(즈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情(유정)도 有情(유정)홀샤.

毗盧峰(비로봉) 上上頭(상상두)의 올라 보니 귀 뒤신고,
東山(동산) 泰山(태산)이 어늬야 놉뎡던고.
魯國(노국)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天下(턴하) 엇씨햐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햐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햐거니 느려가미 고이햐가.

圓通(원통)골 7는 길로 獅子峰(스즈봉)을 츠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化龍(화룡)쇠 되여세라.
千年(천년) 老龍(노룡)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晝夜(듀야)의 흘녀 내여 滄海(창희)에 니어시니,
風雲(풍운)을 언제 어더 三日雨(삼일우)를 디련논다.
陰崖(음애)에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어스라.

磨訶衍(마하연) 妙吉祥(묘길상) 雁門(안문)재 너머 디여,
외나무 써근 드리 佛頂臺(불딩디) 올라햐니,
千尋絕壁(천심절벽)을 半空(반공)애 세여 두고,
銀河水(은하슈)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7티 플터이셔 뵈7티 거러시니,
圖經(도경)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李謫仙(니덕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햐게 되면,



廬山(녀산)이 여기도곤 낮단 말 못 하려니.

山中(산둥)을 미양 보랴, 東海(동해)로 가자스랴.

藍輿緩步(남여완보) 하야 山映樓(산영누)의 올라하니,

玲瓏(녕농) 碧溪(벽계)와 數聲啼鳥(수성 데도)는 離別(니별)을 怨(원)하느 듯,

旌旗(정기)를 썰티니 五色(오식)이 넘노는 듯,

鼓角(고각)을 섯부니 海雲(해운)이 다 것은 듯.

鳴沙(명사)길 니근 물이 醉仙(취선)을 빗기 시러,

바다를 것딕 두고 海棠花(해당화)로 드러가니,

白鷗(백구)야 누디 마라 네 버딘 줄 었디 아는.

金蘭窟(금난굴) 도라드러 叢石亭(총석당) 올라하니,

白玉樓(백옥누) 남은 기동 다만 네히 셔 잇고야.

工倕(공슈)의 성녕인가, 鬼斧(귀부)로 다드문가.

구투야 六面(육면)은 므어슬 象(상)똥던고.

高城(고성)을란 더만 두고 三日浦(삼일포)를 초자가니,

丹書(단서)는 宛然(완연)하되 四仙(스선)은 어디 가니.

예 사흘 머은 後(후)의 어디 가 또 머물고.

仙遊潭(선유담) 永郎湖(영랑호) 거기나 가 잇는가.

清澗亭(청간당) 萬景臺(만경대) 몇 고디 안똥던고.

梨花(니화)는 불셔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洛山(낙산) 東畔(동반)으로 義相臺(의상대)에 올라 안자,



日出(일출)을 보리라 밤등만 내려하니,
祥雲(상운)이 집피는 동, 六龍(육룡)이 바되논 동,
바다히 써날 제는 萬國(만국)이 일위더니,
天中(텨둥)의 티쓰니 毫髮(호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詩仙(시선)은 어디 가고 咳唾(해타)만 나맛느니.
天地間(텨디간) 壯(장)흔 기별 조셔히도 흘셔이고.

斜陽(샤양) 峴山(현산)의 躑躅(적적)을 으니불와,
羽蓋芝輪(우개지륜)이 鏡浦(경포)로 느려가니,
十里(십 리) 氷紈(빙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
長松(당송) 울흔 소개 슬꺾장 퍼더시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孤舟解纜(고주 히람)하야 亭子(딩즈) 우히 올라가니,
江門橋(강문교) 너문 겨티 大洋(대양)이 거기로다.
從容(동용)한다 이 氣象(기상) 濶遠(활원)한다 더 境界(경계),
이도곤 7촌 디 쏘 어디 잇단 말고.
紅粧(홍장) 古事(고스)를 헌스타 흐리로다.
江陵(강능) 大都護(대도호) 風俗(풍속)이 도흘시고.
節孝旌門(절효정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比屋可封(비옥가봉)이 이제도 잇다 흘다.

眞株館(진주관) 竹西樓(독서루) 五十川(오십천) 느린 물이,
太白山(태백산) 그림재를 東海(동해)로 다마 가니,



출하리 漢江(한강)의 木覓(목역)의 다히고져.

王程(왕녕)이 有限(유한)하고 風景(풍경)이 못 슬미니,

幽懷(유회)도 하도 할샤, 客愁(객수)도 둘 디 업다.

仙槎(선사)를 띄워 내여 斗牛(두우)로 向(향)하살가,

仙人(선인)을 좃조려 丹穴(단혈)의 머므살가.

天根(턴근)을 못내 보와 望洋亭(망양녕)의 읤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긱득 노흔 고래, ㄴ이라셔 놀내관디,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銀山(은산)을 것거 내여 六舍(육합)의 ㄴ리는 듯,

五月(오월) 長天(당턴)의 白雪(백설)은 므스 일고.

저근덧 밤이 드러 風浪(풍낭)이 定(녕)하거늘,

扶桑(부상) 咫尺(지척)의 明月(명월)을 기다리니,

瑞光(서광) 千丈(천당)이 ㄴ는 듯 숨는고야.

珠簾(주렴)을 고터 것고, 玉階(옥계)를 다시 쓸며,

啓明星(계명성) 듯도록 곱초 안자 ㄴ라보니,

百蓮花(백년화) 흔 가지를 ㄴ라셔 보내신고.

일이 도흔 世界(세계) ㄴ대되 다 ㄴ고져.

流霞酒(뉴하쥬) ㄴ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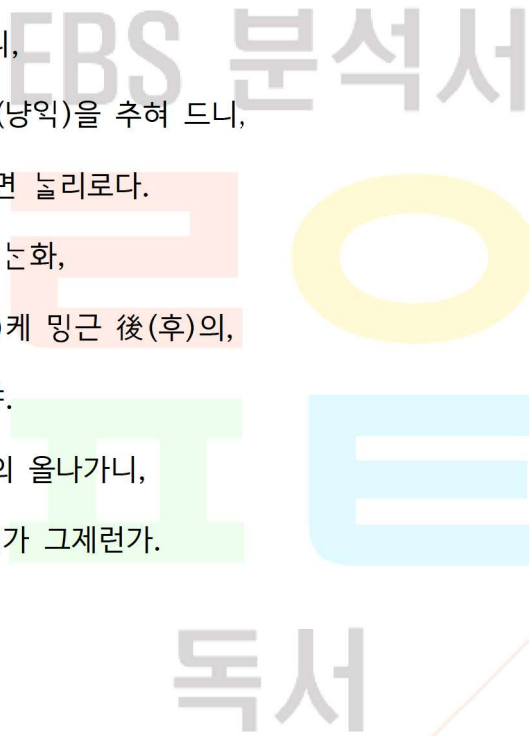
英雄(영웅)은 어디 가며, 四仙(스선)은 ㄴ ㄴ러니,

아미나 맛나 보아 ㄴ트 ㄴ별 ㄴ차 하니,

仙山(선산) 東海(동해)에 갈 길히 머도 멀샤.



松根(송근)을 베어 누어 풋즙을 얼핏 드니,
꿈에 흔 사름이 날드려 날온 말이,
그디를 내 모르랴, 上界(상계)에 眞仙(진선)이라.
黃庭經(황딩경) 一字(일즈)를 엮디 그릇 날거 두고,
人間(인간)의 내려와셔 우리를 쏘오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흔 잔 머거 보오.
北斗星(북두성) 기우려 滄海水(창히슈)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和風(화풍)이 꺾꺾(습습)하야 兩腋(냥익)을 추혀 드니,
九萬里(구만리) 長空(당공)애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海(스히)에 고로 눈화,
億萬(억만) 蒼生(창싱)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쏘 흔 잔 흐젓고야.
말 디자 鶴(학)을 타고 九空(구공)의 올라가니,
空中(공둥) 玉簫(옥쇼)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씨여 바다흙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ㄱ인들 엮디 알리.
明月(명월)이 天山萬落(천산 만낙)의 아니 비친 디 업다.



우활가

정훈

엇지 삼긴 몸이 이대도록 迂濶하고
 迂濶도 迂濶할샤 그레도록 迂濶할샤
 이바 벗님네야 迂濶한 말 들어 보소
 이 내 저머신 제 迂濶호미 그지업서
 이 몸 삼겨나미 禽獸에 다르므로
 愛親敬兄과 忠君弟長을
 分內事만 해엿더니 혼 일도 못되며
 세월이 느저지니 平生 迂濶은
 날 뵈와 기러간다 아춤이 부족흔들
 저녁을 근심하며 一間茅屋이
 비시논 줄 아돏던가 懸鶉 百結이
 붓스러움 어이 알며 어리고 미친 말이
 늬 무일 줄 아돏던가 迂濶도 迂濶할샤
 그레도록 迂濶할샤 春山의 곳을 보고
 도라올 줄 어이 알며 夏亭의 춤을 드러
 썸 싹 줄 어이 알며 秋天의 들 마자



밤드는 줄 어이 알며 冬雪에 詩興 계워

치움을 어이 알리 四時佳景을

아므란 줄 모로라 末路에 부린 몸이

므스 일을 思念홀고 人間 是非

듯도 보도 못하거든 一身 榮枯

百年을 근심홀가 迂濶홀샤 迂濶홀샤

그레도록 迂濶홀샤 아춤의 누잇고

나죄도 그러하니 하늘 삼긴 迂濶을

내 혈마 어이 하리 그레도 애롭도다

고쳐 안자 싱각하니 이 몸이 느껴 나

애들은 일 하고 만타 一百번 다시 죽어

넛 사람 되고라자 羲皇天地에

잠간이나 노라 보면 堯舜日月을

져그나 뵈을 새슬 淳風이 已遠하니

偷薄이 다 되거다 汗漫한 情懷을

늘드려 니르려노 泰山의 올라가

天地 八荒이나 다 바라 보고제고

鄒魯애 두르 거러 聖賢 講業하던

EBS 분석서

2011

독서



자취나 보고제고 周公은 어디 가고

숨의도 뵈잔눈고 已甚흔 이 내 襄을

슬허ㅎ다 어이 ㅎ리 萬里에 눈 쓰고

太古애 뵈즐 두니 迂濶흔 心魂이

가고 아니 오노왜라 人間の 호자 ㅅ어

늘드려 말을 흘고 祝鮫의 妄言을

이제 비화 어이 ㅎ며 宋朝의 美色을

얼근 ㄴ치 잘 ㅎ룬가 右담 山草實를

어디 어더 머그려뇨 무이고 못고이미

다 迂濶의 타시로다 이리 ㅎ오 저리 ㅎ오

다시 ㅎ니 一生事業이 迂濶 아닌 일 업뇌와라

이 迂濶 거느리고 百年을 어이 ㅎ리

아희아 ㅎ 가득 부어라 醉ㅎ여 내 迂濶 ㄴ다

EBS 분석서

크
오
고
ㅌ

독서



넛가에 해오라바~

신흥

원문

넛가에 ㅎㅣ오라바 ㅁㅌ 일 ㅌ ㅌ 잇는다

무심흔 저 고기를 여어 무슴ㅎ려는다

아마도 ㅎ ㅁㄹ에 잇거니 니저 ㄱ들 ㅌ뜨리

현대어

넛가에서 잇는 백로야! 무슨 일로 ㅌ ㅌ 잇느냐?

사심 ㅌ ㅌ 노니는 저 고기를 ㅌ보아서 무엇하려느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같이 한 ㅁㄹ에 살고 잇는 ㅌ장이니, 아예 ㅌ어버리고 내버려두는 것이 어땡겠는가?

EBS 분석서

ㄹㅇㅍㅌ

ㅍㅌ

독서



곰뽕이 매암이 되야

(미상)

곰뽕이 매암이 되야 나래 도쳐 나라올라

노프나 노픈 남게 소리는 죠커니와

그 우희 거미줄 이시니 그를 조심햐여라,

EBS 분석서

리오포트

독서



고산구곡가

이이

고산 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몰으든이
 주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想像)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해오리라.

일곡(一曲)은 어디매고 관암(冠巖)에 해 빛친다.
 평무(平蕪)에 내 거든이 원근(遠近)이 글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녹코 벗 온 양 보노라.

이곡(二曲)은 어디매고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출 씨워 야외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몰온이 알게 한들 엇더리.

삼곡(三曲)은 어디매고 취병(翠屏)에 님 퍼졌다.
 녹수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의
 반송(盤松)이 수청풍(受淸風) 이 녀름 경(景)이 업세라

사곡(四曲)은 어디매고 송애(松崖)에 해 넘거다.
 담심암영(潭心巖影)은 온갓 빛이 잠겼세라.
 임천(林泉)이 김도록 조흐니 흥을 계워 하노라.

(연나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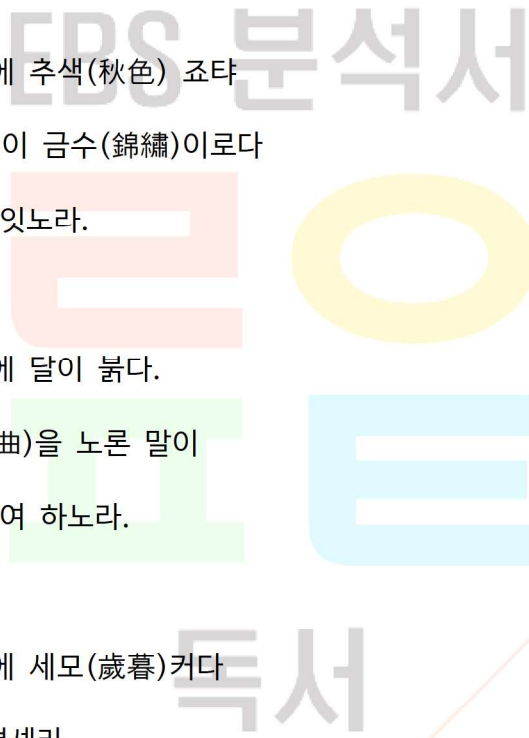
오곡(五曲)은 어디매고 은곡(隱曲)이 보기 죠희
수변정사(水邊精舍)는 소쇄(瀟灑)함도 사이 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할연이와 영월음풍(詠月吟風) 하올이라.

육곡(六曲)은 어디매고 조래(釣峽)에 물이 넘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이느고
황혼에 낙대를 메고 대월귀(帶月歸)를 하노라.

칠곡(七曲)은 어디매고 풍암(楓巖)에 추색(秋色) 죠타
청상(淸霜)이 얹게 친이 절벽(絶壁)이 금수(錦繡)이로다
한암(寒巖)에 혼자 앉아 짐을 닛고 잇노라.

팔곡(八曲)은 어디매고 금난(琴灘)에 달이 붉다.
옥진금미(玉軫金微)로 수삼곡(數三曲)을 노른 말이
고조(古調)를 알 리 업쓰이 혼자 즐여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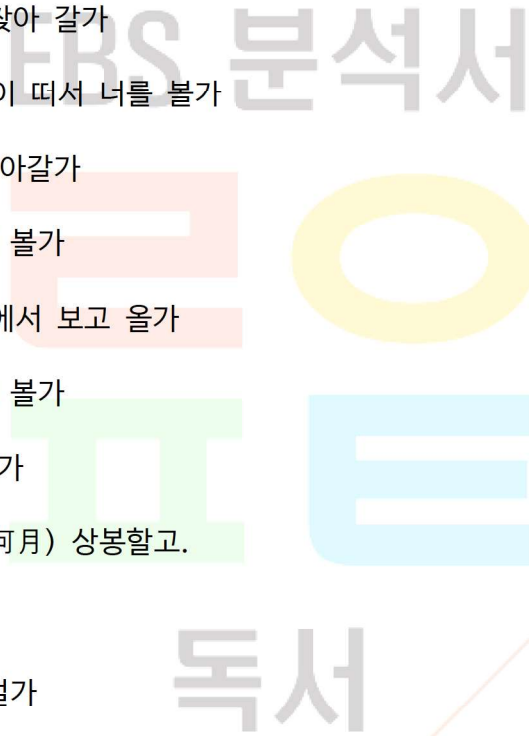
구곡(九曲)은 어디매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못첫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하드라.



사제가

(작자미상)

강산을 대하여도 아우 생각 간절하고
 화초를 대하여도 아우 생각 간절하다.
 오뉴월 가문 때에 취우(驟雨)같이 가서 볼까
 구시월 찬바람에 낙엽같이 날아갈까
 첩첩심산 곧은 골의 바람같이 가서 볼까
 삼월 동풍 연자(燕子)되어 옛집을 찾아 갈까
 연비루천(鳶飛淚天) 소리개같이 높이 떠서 너를 볼까
 구만리 장천상에 대붕(大鵬)같이 날아갈까
 천리마를 빗겨 타고 가는 대로 가서 볼까
 천산(天山)에 유숙하고 중로(中路)에서 보고 올까
 내 몸이 달이 되면 네 창 앞에 비쳐 볼까
 내 발이 구름 되면 네 집에 들러 볼까
 오매불망 네 생각이 하시하월(何時何月) 상봉할고.
 내 나이 사십이오 네 나이 삼십이라
 무정할사 세월이여 백발되기 그리 멀까
 나는 본대 병객인데 너는 무슨 병이 있노.
 삼신산 불로초(不老草)를 뉘 능히 얻을소냐.
 적성의 일녕주를 세상에 누가 알고
 이녀(二女)두고 한탄 마라. 딸은 자식 아닐소냐.
 사녀(四女)둔 네 형은 우중에도 낙사(樂事)로다.
 기이할사 우리 아우 여자되기 아깝도다.



위장강이 갱생(更生)인가 백재(白材)가 구비하고
소야란의 문견(聞見)인가 식견(識見)도 호태하다.
동창(東窓)에 달이 뜨면 앉았는가 생각하고
서산(西山)에 달이 지면 누웠는가 생각하고
망회(忘懷)나 하려 하고 옛 책을 읽어보니
조웅전(趙雄傳) 풍운전(風雲傳) 슬프고 장하도다.
장백전(張伯傳) 봉황전(鳳凰傳) 진언인가 허설인가
사씨전(謝氏傳) 숙향전(淑香傳) 굶이굶이 기담일세.
두 손을 마조 잡고 만단정회(萬端情懷) 하였더니
춘몽(春夢)도 헛것이라. 갑자기 깨졌구나.
다시 심회 불평하니 백이사지(伯夷斯之) 아닐런가.
생각고 생각하니 무익(無益)할사 생각이야.
아모리 생각한들 내 마음 네가 볼가
내 이리 생각할 제 넌들 아니 생각하랴.

EBS 분석서
표
독서

